



제5장

지명유래와 전설

제 1 절 지명유래

제 2 절 전설과 설화

제5장 지명유래와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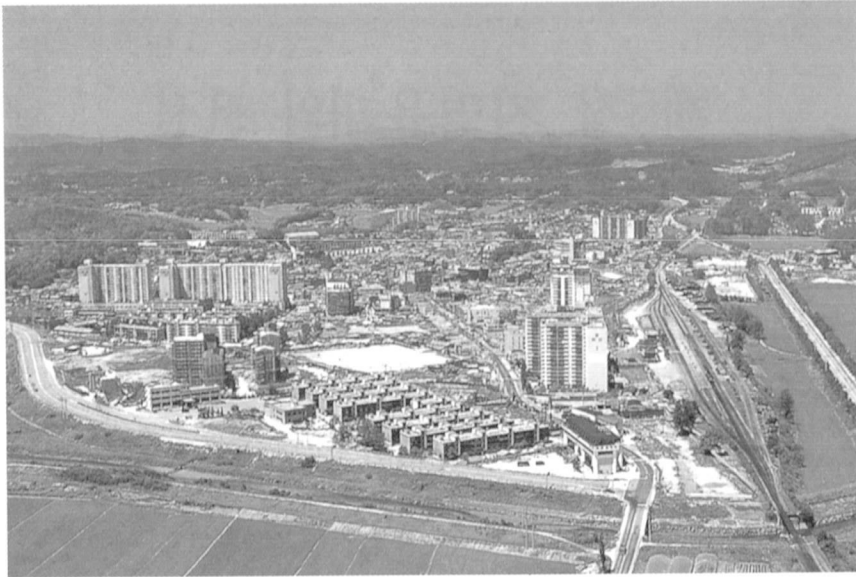
제1절 지명유래

1. 문산읍(汶山邑)

현 문산읍 지역은 백제 근초고왕 시기에는 백제가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지명으로는 술이홀(述爾忽)에 속한 곳이었다. 그 뒤 5세기 고구려에 귀속되어 술이홀현이 되었다. 이후 557년(신라 진흥왕 18)에는 다시 신라의 북한산주(北漢山州)의 술이홀현에 속하게 되었고, 삼국통일 후에는 한산주에 속하게 되었으며, 757년(신라 경덕왕 16)에는 지방제도 정비과정에서 교하군(交河郡) 봉성현(峯城縣)에 귀속되었다.

봉성현은 고려시대에 와서 처음에는 양주에 소속되었다가 1063년(고려 문종 17)에 개성부로 이속되었다. 1174년(고려 명종 4)에 봉성현이 서원현(瑞原縣)으로 개칭되었고, 1390년(고려 공양왕 2)에 양광도 소속으로 바뀌었다. 조선 건국 후인 1393년(태조 2)에 군으로 승격되었고, 1398년 파평현과 합쳐져 원평군이 되었다. 1415년(태종 15) 원평도호부로 승격되었고, 1459년(세조 5)에 왕비의 내향(內鄉)이라 하여 파주목으로 승격, 현 문산읍 지역은 여기에 속하게 되었다. 파주목은 이후 1504년(연산군 10) 한때 혁파되기도 하였으나 곧 복원되어 1895년 부군제(府郡制) 도입과 함께 한성부 파주군이 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1899년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칠정면(七井面) 내에 문산포(汶山浦)라는 명칭이 처음 나오게 된다. 이전에는 상문포(上汶浦)와 하문포(下汶浦)라는 명칭만이 있었다. 현 문산읍 지역은 당시 파



문산읍 시가지 전경

주군의 칠정·마정(馬井)·운천·신속면(新屬面)에 속한 곳으로,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 때 마정면의 마정·장지·반장·사목의 4개 동리, 운천면의 상리·하리, 신속면의 비인·내별·임진 각 일부, 오리면의 장포리 일부를 병합하여 임진강의 이름을 따서 임진면이라 하였다. 이때 임진면 문산리는 파주군의 소재지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에 의하여 임진면이 문산읍으로 승격하고, 월릉면의 내포리를 편입하였으며, 1983년 2월 15일에는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파평면의 이천리를 편입하였다. 문산읍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리의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내포리(內浦里)

조선시대 오리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내동리·굴촌리 전부와 장포리·당산리의 각 일부, 칠정면의 문산하리·당동리의 각 일부지역이 병합, 내동리(內洞里)의 '내'와 장포리(長浦里)의 '포'자를 따서 이름 붙였고 파주군 월릉면에 소속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로 문산읍에 편입되었다.

2) 당동리(堂洞里)

조선시대 파주군 칠정면 지역으로 문산리에 있는 도당에서 굿을 하기위해, 먼저 사목리의 고목에서 마을의 수호신을 맞이하여 와서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갔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당동리·창내동 일부, 운천면의 상리일부, 마정면의 사목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당동리라 하였다. 당동리는 파주군 임진면에 소속되었다. 당골·당굴이라고도 한다.

3) 마정리(馬井里)

조선시대 파주군 마정면 지역으로, 옛날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새벽 햇살 기둥이 우물에 꽂히자 그 안에서 갑자기 용마(龍馬)가 뛰어나왔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마정면의 장지리 전부와 마정리 일부, 신속면의 내벌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마정리라 하였다. 마정리는 파주군 임진면에 소속되었다. 말우물이라고도 한다.

4) 문산리(汶山里)

조선시대 파주군 칠정면 지역으로, 홍수가 날 때면 임진강으로 흙탕물이 내려가다 서해의 조수에 밀려 더러운 흙탕물이 산더미처럼 밀려왔다 하여 문산(汶山)이라 하였다. 예로부터 문산이라 불렸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문산상리의 창내동·문산하리 일부, 오리면의 장포리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문산리라 하였다. 문산리는 파주군 임진면에 소속되었다. 이곳의 물맛은 서해의 염분으로 짜고 맛이 없어 일제강점기에는 물을 사먹을 정도였다. 문산개·문산포라고도 한다.

5) 사목리(沙鷺里)

조선시대 파주군 마정면 지역으로, 예로부터 이곳은 임진강으로 둘러싸여 산수가 아름다우며 임진강 건너편 광활한 거두리 모래벌판에 매년 찾아오는 철새와 따오기가 장관을 이루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마정면 반장리 전부와 사목리 일부, 운천면의 하리 일부, 칠정면의 당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사목리라 하였다. 이때 사목리는 파주군 임진면에 소속되었다. 사모기·사무기·새모기·새무기라고도 한다.

6) 선유리(仙遊里)

조선시대 파주군 칠정면 지역으로, 경치가 아름다워 8선녀가 산봉에서 놀고 올라갔다는 전설

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칠정면의 창내동·이천리의 각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선유리라 하였다. 이때 선유리는 파주군 임진면에 소속되었다. 선유동·선율·선울·선유울이라고도 한다.

7) 운천리(雲泉里)

조선시대 파주군 운천면 지역으로 큰 우물이 있었으므로 운천리라 하였다. 또 산골짜기에는 구름이 돌아가며 여러 곳에서 많은 샘이 솟아나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운천면 상리·하리의 각 일부, 칠정면의 당동리 일부, 마정면의 마정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운천리라 하였다. 이때 운천리는 파주군 임진면에 소속되었다. 구루물이라고도 한다.

8) 이천리(梨川里)

조선시대 파주군 파평면 지역으로, 예로부터 이 지역에는 배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해 큰 홍수가 나 많은 배가 불에 떠내려가 ‘배가 내를 이루었다’ 고하여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파평면 이천리에 지천리·용산리의 각 일부, 그리고 칠정면의 이천리 일부지역을 편입, 그대로 이천리가 되고 파주군 파평면에 소속되었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문산읍에 편입되었다.

9) 임진리(臨津里)

조선시대 신속면 지역으로 임진나루터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속면 임진리 일부와 운천면의 상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임진리라 하였다. 이때 임진리는 파주군 임진면에 소속되었다. 임진골이라고도 한다.

10) 장산리(長山里)

조선시대 파주군 신속면 지역으로, 장산에서 임진나루까지 약 2km 가량 높이가 같은 산이 임진강가를 따라 길게 뻗었으므로 진동산 또는 장산이라 하였다 1755년(영조 31)에 진과 보루를 설치하고 별장을 두어 지켰으므로 장산보 또는 장산진이라고 하다가 진을 폐한 후 다시 장산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비인리에 내벌리·임진리의 각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장산리라 하였다. 이때 장산리는 파주군 임진면에 소속되었다.



파주읍 시가지 전경

2. 파주읍(坡州邑)

현 파주읍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술이홀현(述爾忽縣)에 속한 곳이였으며, 통일신라 때에는 한주의 봉성현, 고려시대에는 양주, 양광도의 서원현, 그리고 조선말기까지 파주군에 속한 곳이었다. 1899년 당시에는 파주군 주내면에 속한 지역으로 동부·서부·남부·북부·마산(馬山)·용지(龍池)·대조(大棗)·부곡(釜谷)의 8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 때 백석면(白石面)의 오라(五羅)·우건(牛巾)·봉현(烽峴)·현암(絃岩)·방축(防築)·학동(學洞)·적전(赤田)의 7개 동리와 자곡면(紫谷面)의 도내리(都內里)일부, 칠정면(七井面)의 향양리(向陽里)를 병합하고 이를 다시 파주·연풍·부곡·백석·봉암·봉서·향양의 7개 리로 개편하여 주내면이라 하였다.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0050호에 의하여 주내읍으로 승격되고,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파주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파주읍을 구성하고 있는 7개 리의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백석리(白石里)

조선시대 파주군 백석면 지역인데, 가마봉 자락인 무쇠봉이 흰 돌로 이루어져 있어 붙은 이름

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우건리·오라리의 각 일부와 자곡면의 도내동 일부지역을 병합, 백석리라 하고 주내면(현 파주읍)에 소속되었다.

2) 봉서리(鳳棲里)

조선시대 백석면 지역으로, 리명은 봉서산에서 유래했다. 봉서란 경관이 뛰어나고 송림이 울창하여 봉황이 깃든 곳이라는 의미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적전리에 학동리·방축리의 각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봉서리가 되고 주내면(현 파주읍)에 소속되었다.

3) 봉암리(烽岩里)

조선시대 백석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봉현리 전부와 오라리·현암리·방축리·학동리의 각 일부지역을 병합, 봉현(烽峴)의 '봉' 자와 현암(絃岩)의 '암' 자를 따서 봉암리라 하여 주내면(현 파주읍)에 소속되었다.

4) 부곡리(釜谷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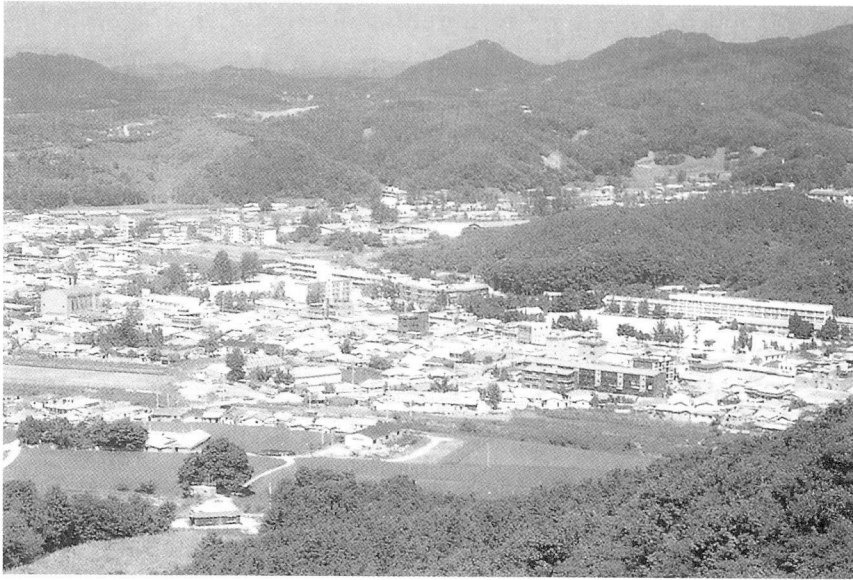
조선시대 주내면 지역으로, 이 지역을 남북으로 둘러싼 다섯 개 산봉우리의 지형이 가마솥처럼 생겼으므로 가마울·가말·부곡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부곡리에 대조리 일부와 백석면의 우건리 일부지역이 편입되었으며, 부곡리는 주내면(현 파주읍)에 소속되었다.

5) 연풍리(延豊里)

조선시대 주내면 지역으로, 갈곡천이 흐르고 삼방리쪽에서 내려오는 물로 항상 농사가 대풍을 이루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지리 전부와 대조리 일부지역을 병합, 연풍리라 하여 주내면(현 파주읍)에 소속되었다.

6) 파주리(坡州里)

조선시대 파주목의 치소(治所)였고 주내면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주내면 동부리·서부리·남부리·북부리·마산리에 백석면 오라리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파주리라 하였다. 파주리는 주내면(현 파주읍)에 소속되었다. 1904년 파주군청이 문산읍으로 옮겨가 한산하다가 1953년 이후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크게 번창하였다. 파주읍내·파주구읍이라고도 한다.



법원읍 시가지 전경

7) 향양리(向陽里)

조선시대 칠정면 지역으로 양지바른 곳이어서 붙은 이름이라고도 하고, 우계 성혼의 묘를 쓴 후 그를 흠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사당을 세워 태양을 바라보듯 하였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그대로 향양리라 하여 주내면(현 파주읍)에 소속되었다. 향양말 · 향말 · 생말이라고도 한다.

3. 법원읍(法院邑)

현 법원읍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술이홀현(述爾忽縣)에 속한 곳이었으며, 통일신라 때에는 한주의 봉성현, 고려전기에는 양주, 고려후기에는 양광도의 서원현, 그리고 조선말기까지 파주군에 속한 곳이었다.

조선말기 당시에는 천현(泉峴[샘재])의 이름을 따서 천현면이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 32)에 천현내패와 천현외패 2면으로 갈랐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 때 천현내패 · 외패면과 파평면의 지천리 일부를 병합하여 천현면이라 하였다.

1989년 4월 1일 군 조례 제1280호로 법원읍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승격하였다. 법원읍은 법원

리에서 그 명칭이 유래된 것인데 법원리는 법의리(法儀里)의 '법'자와 원기리(院基里)의 '원'자를 딴 것이다. 법원읍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리의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야리(加野里)

조선시대 천현외패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양야리·원기리·가좌동의 각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가좌동(加佐洞)의 '가'자와 양야리(陽野里)의 '야'자를 따서 가야리라 하였다.

2) 갈곡리(葛谷里)

조선시대 천현외패면 지역인데, 이 지역은 노고산 내령으로 자운산을 거쳐 삼봉산에 이르러 수레너미고개 좌우편 산야에 칙녕쿨로 뒤덮여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갈동리·은곡리에 천현내패면의 오리동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갈동리(葛洞里)의 '갈'자와 은곡리(隱谷里)의 '곡'자를 따서 갈곡리라 하였다. 칙울·갈동이라고도 한다.

3) 금곡리(金谷里)

조선시대 천현내패면 금곡리 지역으로, 쇠를 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개목이·장승거리·동가동 등을 그대로 금곡리라 하였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금을 파던 굴이 7~8군데 있었다고 한다. 쇳골이라고도 한다.

4) 대능리(大陵里)

조선시대 천현외패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오릉리에 양야리, 대위리의 각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대위리(大位里)의 '대'자와 오릉리(五陵里)의 '능'자를 따서 대능리라 하였다.

5) 동문리(東文里)

조선시대 천현외패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막리와 문평리에 가좌동 일부와 파평면의 지천리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동막(東幕)의 '동'자와 문평(文平)의 '문'자를 따서 동문리라 하였다. 울곡선생의 비문에는 두문리(斗文里)로 되어 있다.

6) 법원리(法院里)

조선시대 천현외패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법의리 전부와 대위리, 원기리의 각 일부, 그리고 천현내패면의 오리동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법의(法儀)의 ‘법’ 자와 원기(院基)의 ‘원’ 자를 따서 법원리라 하였다.

7) 삼방리(三防里)

조선시대 천현외패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둔방리 전부와 삼현리 일부를 병합하여 삼현리(三峴里)의 ‘삼’ 자와 둔방리(屯防里)의 ‘방’ 자를 따서 삼방리라 하였다.

8) 오현리(梧峴里)

조선시대 천현내패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오리동과 부작동의 각 일부지역인 황발리·샘골·동두라지·차현동 등을 병합하여 오리동의 ‘오(梧)’ 자와 차현동의 ‘현(峴)’ 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9) 웅담리(熊潭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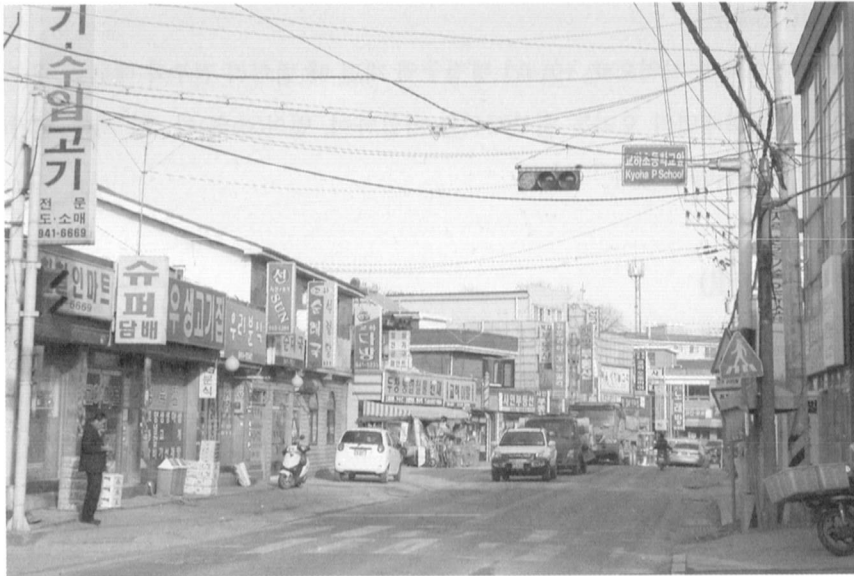
조선시대 천현내패면 지역으로, 곰소가 있어 곰소 또는 곰시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북암동·노파동·버들메·수작골 등을 병합하여 그대로 웅담리라 하였다.

10) 직천리(直川里)

조선시대 천현내패면 지역으로, 곧게 흐르는 냇가 있어 고드내라 하고 한자어로 직천동이라 하였다. 수레너미고개에서 내려가는 냇물이 이곳을 통과하여 늘노천으로 흘러든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설원동·한터·먼내·벌말·삼박골·상산골·부작동 지역을 직천리라 하였다.

4. 교하읍(交河邑)

교하읍은 삼국시대 천정구현에 속한 곳이다. 그 후 신라 경덕왕 때 교하군으로 개칭하였고, 선성(宣城)이라고도 불렀다. 현 교하면 지역은 그 뒤 고려전기에는 양주, 고려후기에는 양광도, 그리고 조선시대는 명칭 그대로 교하군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교하란 명칭은 면의 서쪽에서 흐르



교하읍 시가지

는 한강과 북동쪽에서 흐르는 임진강이 합류하여 서해로 들어가는 곳 이라는 데서 생긴 것이다.

조선말기 교하면은 지금의 금촌읍·탄현면·교하면을 포괄하는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와석면(瓦石面)·청석면(靑石面)·탄현면(炭縣面)·아동면(衙洞面) 등으로 나뉘고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따라 와석면과 청석면 일원을 합하여 교하면이라 하였다.

1989년 군 조례 제1251호로 상지석리 일부가 조리면에 편입되었으며, 2002년 인구 증가에 따라 교하면이 교하읍이 되었다 현재 읍소재지인 교하리를 비롯 16개 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하리(交河里)

조선시대 교하군 지석·와동면 지역으로, 교하읍내가 되므로 교하읍내·읍내·교하라 하였다. 옛날에 교하현 관아가 있던 마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석면의 읍내리 전부와 상지석리 일부, 와동면 당하리 일부, 아동면의 신금촌 일부, 현내면의 금릉리 일부가 병합되어 교하리가 되고 파주군 와석면에 소속되었다.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편제되었다.

2) 다율리(多栗里)

조선시대 교하군 청암면 지역으로, 밤이 많이 나므로 한바미[一夜味]·한밤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다율리 일부지역은 와석면 목동리로 떨어져 나가고 그 나머지를 그대로 다율리라 하여 파주군 청석면에 소속되었다.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편제되었다.

3) 당하리(堂下里)

조선시대 교하군 와동면 지역으로, 산제당 아래가 되므로 당아래 또는 당하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당하리 일부지역이 교하리로 떨어져 나가고 그 나머지를 그대로 당하리라 해서 파주군 와석면에 소속되었다.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편제되었다.

4) 동패리(東牌里)

조선시대 교하군 석곶면 지역으로, 석곶면의 동쪽이 되므로 동패라 하였다. 옛날 고양군과의 경계를 나타내는 동쪽 경계 팻말이 있는 지역이어서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패리와 가좌동 각 일부를 병합하여 동패리라하여 파주군 청석면에 소속되었다.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편제되었다.

5) 목동리(木洞里)

조선시대 교하군 와동면 지역으로, 나무가 무성하므로 나물 또는 목동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목동리 일부와 청암면 다율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파주군 와석면에 소속되었다.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편제되었다.

6) 문발리(文發里)

조선시대 교하군 석곶면 지역으로, 방촌 황희의 예장시 문종의 교시에 힘입어 선비들이 문학에 힘써 이름을 떨쳤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문발리 일부와 동패리 일부를 병합하여 문발리라 해서 파주군 청석면에 소속되었다.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편제되었다.

7) 산남리(山南里)

조선시대 교하군 석곶면 지역으로, 심학산 남쪽이 되므로 산남리라 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산남리에 구산리 일부지역이 편입되어 파주군 청석면에 소속되었다.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편제되었다.

8) 상지석리(上支石里)

조선시대 교하군 지식면 지역으로, 고인들이 두 곳에 있는데, 이곳이 위쪽이 되므로 윗권돌 또는 상지석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상지석리 전부에 등원리·설문리의 각 일부, 현내면의 금릉리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상지석리라 해서 파주군 와석면에 소속되었다가,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속하게 되었다.

9) 서패리(西牌里)

조선시대 교하군 석곶면 지역으로, 석곶면의 서쪽이 되므로 서패라고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패리에 동패리 일부를 편입하여 서패리라 하고 파주군 청석면에 소속되었다가,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편제되었다.

10) 송촌리(松村里)

조선시대 교하군 청암면 지역으로, 소나무가 많으므로 송촌, 또는 이 마을 옆을 흐르는 곡릉천가에 웅덩이가 많아 소라지(沼羅地)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송촌리 일부가 신촌리로 떨어져 나가고 현내면의 갈현리 일부를 편입, 그대로 송촌리로 하고 파주군 청석면에 소속되었다.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편제되었다.

11) 신촌리(新村里)

조선시대 교하군 청암면 지역으로, 새로 마을이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촌리 전부에 송촌리 일부, 석곶면의 문발리 일부를 편입하여 신촌리라 해서 파주군 청석면에 소속되었다가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편제되었다. 새말·셋말·간촌이라고도 한다.

12) 야당리(野塘里)

조선시대 교하군 와동면 지역으로 들 가운데에 못이 있었으므로 들모시·틀모시·야당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야당리와 덕이리 일부를 병합하여 야당리로 하고 파주군 와석면에 소속되었다.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편제되었다.

13) 연다산리(烟多山里)

조선시대 교하군 청암면 지역으로, 작은 산이 연달아 있으므로 붙은 이름이다. 또 일상적인 해일로 안개가 자욱이 덮여 있다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연다산리 일부지역이 그대로 연다산리가 되어 파주군 청석면에 소속되었다가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편제되었다. 연달매·연다매라고도 한다.

14) 오도리(吾道里)

조선시대 교하군 청암면 지역으로, 오두말 또는 오도촌이라 하였다. 방촌 황희의 예장 당시 문종의 교시에 힘입어 이 마을 선비들이 문학에 전념하여 먼저 정도를 받아 널리 이름을 떨치자 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오도리 일부지역을 그대로 오도리라 해서 파주군 청석면에 소속되었다가,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편제되었다.

15) 와동리(瓦洞里)

조선시대 교하군 와동면 지역으로, 이곳에서 기와를 구웠으므로 붙은 이름이다. 또 옛날 파평윤씨 권문들이 많이 살던 곳이며 부자들의 기와집이 즐비하였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와동면 일부지역을 그대로 와동리라 해서 파주군 와석면에 소속되었다가,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편제되었다. 기새울·지새울(芝山)·왓골이라고도 한다.

16) 하지석리(下支石里)

조선시대 교하군 지석면 지역으로, 두 곳의 고인돌 중 아래쪽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하지석리 일부지역을 그대로 하지석리라 해서 파주군 와석면에 소속되었다가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이 합하여 교하면이 되자 이에 편제되었다. 아래권돌이라고도 한다.



조리읍 시가지

5. 조리읍(條里邑)

현 조리읍 지역은 삼국시대 당시에는 술이홀현(述爾忽縣)에 속한 곳이었으며, 통일신라 때에는 한주의 봉성현, 고려전기에는 양주, 고려후기에는 양광도의 서원현, 그리고 조선말기까지 파주군에 속한 곳이었다.

1899년(광무 3)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파주군 조리동면(條里洞面·助里洞面)이라 하다가 조리면으로 줄여 부르게 되었다. 공릉산(恭陵山) 정상에서 사면으로 뻗은 가지(條) 모양의 산줄기를 따라 골짜기마다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교하군 아동면의 등원리·아동리의 일부, 지석면의 상지석리 일부와 고양군 사리대면의 설문리·지영리의 각 일부지역을 병합, 죽원·뇌조·오산·장곡·봉일천·등원 등 6개 리로 개편하여 조리면이라 하였다. 이후 1989년 1월 1일 군 조례 제1251호에 의거하여 능안리가 포함되어 7개 리를 관장하게 되었고 2002년 인구증가에 따라 조리면이 조리읍이 되었다. 현재 읍소재지인 봉일천리를 비롯 7개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뇌조리(弩造里)

조선시대 조리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뇌조리와 오리동 일부, 교하군 아동면 등원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뇌조리라 하였다.

2) 능안리(陵案里)

조선시대 교하군 지식면 상지석리에 속한 마을이었다. 1989년 1월 1일 조리면에 편입되었다. 조리면에 있는 공·순·영릉(恭·順·永陵) 가운데 순릉이 마주 건너다보이는 곳이다. 능안말 또는 안능안이라 한다.

3) 등원리(登院里)

조선시대 파주군 조리면과 교하군 아동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파주군 조리면의 봉일천·뇌조리 일부와 교하군 아동면 등원리·아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등원리라고 하였다.

4) 봉일천리(奉日川里)

조선시대 조리면 지역으로, 이 지역은 곡릉천 하상보다 낮은 지역으로 매년 홍수로 물난리를 겪게 되자 비는 적게 오고 해가 뜨게 해달라고 하여 불은 이름이라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일부와 교하군 아동면 등원리 일부를 병합하여 봉일천리라 하였다. 지금의 곡릉천의 옛 이름은 보신천(寶信川)이며 조선조에는 봉일천이었고, 곡릉천은 속칭이다.

5) 오산리(梧山里)

조선시대 조리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오리동과 뇌조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오산리라 하였다. 오리동의 ‘오’자와 전지산의 ‘산’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라고 한다.

6) 장곡리(獐谷里)

조선시대 조리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곡리 전부와 장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장산(獐山)의 ‘장’자와 기곡(基谷)의 ‘곡’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7) 대원리(大院里)

조선시대 조리면 지역으로, 대우너 또는 대원리라 하였는데 고종 때 홍선대원군의 군호(君號)와 같다 하여 '대(大)'자를 대나무를 뜻하는 '죽(竹)'으로 고쳐 죽원리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죽원리·장산리 일부, 고양군 사리대면의 설문리·지영리의 각 일부, 교하군 지식면의 상지석리 일부, 현내면의 금릉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죽원리라 하였다. 일제 때에는 천안동·낙안동·혜화동·혜시동 등의 소지명이 있었으나 주로 죽원1·2·3리 등으로 불렸다. 최근에 와서 죽원리의 발음이 이상하다하여 다시 본래의 지명인 대원리로 고쳐졌다.

6. 월릉면(月籠面)

현 월릉면 지역은 삼국시대 당시에는 술이홀현에 속한 곳이었고, 통일신라 때에는 한주의 봉성현, 고려전기에는 양주, 고려후기에는 양광도의 서원현, 그리고 조선말기까지 파주군에 속한 곳이었다. 조선말기 당시 파주군의 지살면·자곡면에 속한 지역으로 위전·용은·덕옥·영태·순상·도내의 6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 때 오리면의 당산·능동·내동·굴촌·장포의 일부, 백석면의 현암·오라의 각 일부, 광탄면의 두만 일부, 칠정면의 문산하리·당동리의 각 일부, 교하군 아동면의 동원·아동의 각 일부지역 등을 병합하여 6개 리를 월릉산의 이름을 따서 월릉면이라 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에 의하여 내포리가 문산읍으로 편입되고, 1987년 현재 위전리를 비롯하여 5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1) 능산리(陵山里)

조선시대 오리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당산·능동의 일부와 감정골·슴통골 등을 병합하여 능동(陵洞)의 '능'자와 당산(棠山)의 '산'자를 따서 능산리라 하였다.

2) 덕은리(德隱里)

조선시대 자곡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위전리·용은동·덕옥리의 일부와 백석면의 현암리 일부, 오리면의 능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덕옥(德玉)의 '덕'자와 용은(龍隱)의 '은'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월롱면 시가지

3) 도내리(都內里)

조선시대 자곡면 지역으로, 도감 벼슬을 한 사람이 살았다 하여 도감골 또는 도감동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도내동·순상리의 일부와 광탄면의 두만리 일부를 병합하여 도내리라 하였다.

4) 영태리(英太里)

조선시대 자곡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영태리·위전리·순상리 각 일부와 교하군 아동면의 아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영태리라 하였다.

5) 위전리(葦田里)

조선시대 자곡면 지역으로 다락고개 밑이 되므로 다락고개·달앗·누현·위전이라 하였다. 위전은 옛날에 마을 주변에 갈대가 무성하고 배가 왕래하였는데 그 후 갈대를 베고 마을을 이루어 붙인 이름이다. 옛날에는 지금의 영도초등학교 앞까지 배가 올라왔었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순상리·위전리·용은동·도내동의 각 일부와 백석면 오라리를 병합하여 위전리라 하였다.



탄현면 시가지

7. 탄현면(炭縣面)

현 탄현면 지역은 삼국시대 당시의 지명으로 천정구(泉井口)에 속해 있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주에, 고려전기에는 양주와 개성부에, 고려후기에는 양광도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교하군에 속한 지역이다. 1985년(고종 32) 부군제가 실시되면서 이 지역은 일시 파주에 속했다가 다시 교하군으로 복귀하였다. 그 당시에는 교하군 현내면·신오리면·탄포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교하군 현내면의 범흥·맥금·성동 지역과 신오리현의 성동·대동·만우·금산 지역, 탄포면의 축현·금승·낙하·문지·오금 지역, 청암면의 송촌·연다산·오도·갈현의 각 일부지역, 파주군 오리면의 능동리 일부, 자곡면의 덕옥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탄현면이라 하여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이때 면소재지 오금리를 비롯 11개 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탄현은 탄포(炭浦)의 '탄'자와 현내(縣內)의 '현'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1939년 오금리에서 축현리로 면소재지가 이전되었다. 현재 11개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갈현리(葛峴里)

조선시대 교하군 현내면 지역으로, 가루고개 밑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청암면 갈현리·송촌리·연다산리·오도리의 각 일부지역과 현내면의 맥금리를 병합하여 갈현리라 하였다. 가루개·가루고개·갈현이라고도 한다.

2) 금산리(錦山里)

조선시대 교하군 신오리면 지역으로 보현봉·선무봉·문필봉 등의 기암절벽과 임진강의 경관이 뛰어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금산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금산리라 하였다. 그미·금의라고도 한다.

3) 금승리(金蠅里)

조선시대 교하군 탄포면 지역으로, 이곳은 월룡산맥 자락으로 금맥이 있다고 하여 여기저기 파보았으나 파리똥만큼의 소량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금승리·낙하리 일부지역과 파주군 오리면의 능동리 일부지역, 그리고 자곡면 덕옥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금승리라 하였다. 쇠파리·쇠파니라고도 한다.

4) 낙하리(洛河里)

조선시대 교하군 탄포면 지역으로 임진강 옆에 낙하원(洛河院)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동리와 만우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낙하리라 하였다. 장단을 거쳐 개성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5) 대동리(大洞里)

조선시대 교하군 신오리면 지역으로 임진강가에서 가장 큰 마을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동리와 만우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대동리라 하였다. 큰골·대동이라고도 한다.

6) 만우리(萬隅里)

조선시대 교하군 신오리면 지역으로, 임진강가의 큰 모퉁이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만우리·대동리·금산리의 각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만우리라 하였다. 만모퉁이라고도 한다.

7) 문지리(文智里)

조선시대 교하군 탄포면 지역으로, 이곳은 어봉산 앞에 자리한 지역인데 황희의 예장 때 문종의 교시에 의해 우선 문학과 지혜를 넓히자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임진강가의 산줄기에 있어 문줄이라고도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분지리에 오금리·금승리의 각 일부지역을 흡수하여 그대로 문지리라 하였다.

8) 법흥리(法興里)

조선시대 교하군 현내면 지역으로 큰 절이 있어 법회를 자주 열고 불법을 흥왕하게 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황희의 예장 때 문종이 문(文)·덕(德)·지(智)를 넓히도록 교시한 것에 따라 우선 법을 준수하는데 앞장서자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현내면 법흥리 전부에 성동리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그대로 법흥리라 하였다. 최근 통일동산 조성사업으로 많은 마을이 철거되었다.

9) 성동리(城洞里)

조선시대 교하군 신오리면 지역으로 오두산성 밑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성동리와 법흥리 각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성동리라 하였다. 이 지역은 앞으로 임진강이 흐르고 삼도품과 김포·강화·개풍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요충지역이다. 잣골·작골이라고도 한다.

10) 오금리(烏今里)

조선시대 교하군 탄포면 지역으로 옛날 질오목(叱畝木)과 오금미(烏今美) 부락으로 되어 있어 질오목의 '오'자와 오금미의 '금'자를 따서 오금리라 부르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오금리 일부지역이 그대로 오금리가 되었다. 오금리란 이름의 유래는 조선조 세종 때 밀산군 박중손의 묘지를 물색하고자 매봉재·신선봉·구미봉 등을 샅샅이 뒤졌으나 명당을 찾지 못해 서성이던 중 매봉재 아래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듣고 명당을 찾았다 하여 '오고미'(烏告美)라 하였는데 이것이 오금리로 변한 것이라 한다.

11) 축현리(柵峴里)

조선시대 교하군 탄포면 지역으로 싸리고개 밑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광탄면 시가지

때 축현리 전부에 신오리면의 금산리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그대로 축현리라 하였다. 싸리고개 · 축현동이라고도 한다.

8. 광탄면(廣灘面)

현 광탄면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술이홀현에 속한 곳이었다. 그 후 통일신라 때에는 한주의 봉성현, 고려전기에는 양주, 고려후기에는 양광도의 서원현, 그리고 조선말기까지 파주군에 속한 곳이었다. 광탄이라는 명칭이 1841년 『파주목읍지』에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이전부터 광탄면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양주군 백석면과 광적면 양쪽에서 흘러내린 물이 문산천으로 합류하는데 이것이 넓은 여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탄(廣灘)이라 한다.

1899년(광무 3)에는 16개 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양주군 백석면 마장리 일부가 편입되어 7개 리로 편제되었다. 1983년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의해 양주군 백석면의 기산리와 영장리를 편입, 2개리가 늘어 현재 면 소재지인 신산리를 비롯해 9개 리로 구성되었다. 그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산리(基山里)

조선시대 양주군 백석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기곡리·내고령리 전부에 중산리 일부를 편입하여 기곡(基谷)의 '기'자와 중산(中山)의 '산'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당시 기산리는 양주군 백석면 소속이었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해 파주군 광탄면에 편입되었고,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에 의해 기산리 일부가 다시 양주군 백석면에 편입되었다.

2) 마장리(馬場里)

조선시대 광탄면 지역으로 1504년(연산군 10) 전국의 군마를 집결시켜 사육하고 기마훈련장으로 이용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마장골 또는 마장동이라 하기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파주군 광탄면 마장리 일부와 양주군 백석면 마장리 일부를 병합하여 마장리라 하였다.

3) 발랑리(發郎里)

조선시대 광탄면 지역으로, 이곳의 뒤쪽 골짜기에 절이 있어 이 마을을 지나는 중들이 등에 바랑을 지고 다녔다 하여 붙은 이름으로 바람골·바랑골·발랑동이라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발랑리 일부인 오미·토란이·원터·새말 등을 그대로 발랑리라 하였다.

4) 방축리(防築里)

조선시대 광탄면 지역으로 방축이 있어 방축말 또는 방축동이라 하기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방축리 전부에 사창리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방축리라 하였다. 우두산(牛頭山) 밑에 자리한 마을이다.

5) 분수리(汾水里)

조선시대 광탄면 지역으로 용미리와 분수3리가 만나는 작은 고개가 있는데 이곳을 기점으로 임진강과 한강으로 흘러드는 물이 기원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또 역원인 분수원(焚脩院)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1361년(고려 공민왕 10) 11월에 왕과 노국공주가 홍건적의 난을 피하여 남쪽으로 도망가는 길에 이곳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분수원 일부인 제청말·느티말·뒷골·점말·부석굴·안골 등을 그대로 분수리라 하였다. 원골·분수원이라고도 한다.

6) 신산리(新山里)

조선시대 광탄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점리·두만리 전부와 조리면 화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신점(新店)의 '신'자와 화산(花山)의 '산'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광탄면의 소재지로 면사무소·경찰지서·학교·우체국 등이 있다.

7) 영장리(靈場里)

조선시대 양주군 백석면 지역으로 보광사 주위 일대에 걸쳐서 임진왜란 당시 서산대사가 이끌었던 승병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 원한에 사무친 영혼들이 헤매고 있는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고령리와 웅장리 전부, 마장리·중산리의 각 일부, 파주군 광탄면 마장리의 일부와 고양군 신혈면 벽제리 일부를 병합하여 대고령(大古靈)의 '영'자와 웅장(甕場)의 '장'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해 파주군 광탄면에 편입되어 영장출장소 관할이 되었다.

8) 용미리(龍尾里)

조선시대 광탄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호미리·구룡리 전부에 분수원 일부를 편입하여 구룡(九龍)의 '용'자와 호미(虎尾)의 '미'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9) 창만리(倉滿里)

조선시대 광탄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두만리와 사창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사창(社倉)의 '창'자와 두만(斗滿)의 '만'자를 합쳐 붙인 이름이다.

9. 파평면(坡平面)

현 파평면 지역은 삼국시대 초기 당시의 지명으로 파해평사현(坡海平史縣)에 속한 곳이었다. 이후 557년(신라 진흥왕 18)에는 신라에 의해 북한산주에, 삼국통일 후에는 파평현으로 개칭, 내소군(來蘇郡)에 해당되는 지역에 속하였다.

그 뒤 파평현은 고려전기인 995년(고려 성종 14)에 개성부 관할 기현(畿縣)으로 되었다. 1018년(고려 예종 1)에 장단군으로 이속되었다가 1063년(고려 문종 17) 다시 개성부 소속이 되었고,



파평면 시가지

1390년(고려 공양왕 2)에는 경기좌도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 건국 후 1398년(태조 7) 서원군과 합하여 원평군이 되었다. 원평군은 1415년(태종 15) 원평도호부로 승격되었고, 1459년(세조 5)에는 파주목으로 승격되었다. 파주목은 한때 혁파되는 과정을 겪다가 1895년 부군제(府郡制) 도입과 함께 한성부 파주군이 될 때까지 유지된다.

파평현 지역은 조선말까지 풍덕·천천·늘노·장포·두문·신사·마사·신곡·이천·지천·용산 등 12개 동리가 이곳에 속하였는데 1899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한성부 파주군 파평면으로 되어 18개 리로 구성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칠정면의 이천리와 신속면의 임진리 각 일부, 그리고 적성군 서면의 식현·도장리의 각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울곡·두포·이천·마산·금파·늘노·덕천 등 7개 리로 개편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적성면의 장파리를 편입하여 8개 리가 되었고,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이천리를 문산읍에 넘겨주어 현재 면소재지인 금파리를 비롯해 7개 리가 되었다. 그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금파리(金城里)

조선시대 파평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장포리·금포리·늘노리의 각 일부지역

을 병합하여 금곡(金谷)의 ‘금’자와 장파(長坡)의 ‘파’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2) 늘노리(訥老里)

조선시대 파평면 지역으로 늪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늘노리와 금곡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늘노리라 하였다. 늪노리·늪느리라라고도 한다.

3) 덕천리(德泉里)

조선시대 파평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풍덕리에 천천리 일부지역, 적성군 서면의 식현리·도장리의 각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풍덕(豐德)의 ‘덕’자와 천천(泉川)의 ‘천’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4) 두포리(斗浦里)

조선시대 파평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두문리에 신사리·장포리·마사리의 각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두문(斗文)의 ‘두’자와 장포(長浦)의 ‘포’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5) 마산리(麻山里)

조선시대 파평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산리와 마사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마사(麻沙)의 ‘마’자와 용산(龍山)의 ‘산’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용산동이라고도 하고, 평촌동·평촌리라고도 한다.

6) 울곡리(栗谷里)

조선시대 파평면 지역으로 밤나무가 많았으므로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평리 전부와 신사리 일부, 칠정면의 이천리 일부, 신속면의 임진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울곡리라 하였다. 밤실·밤실골·방굴·밤골이라고도 한다.

7) 장파리(長坡里)

조선시대 적성군 서면 지역으로 긴등마루에 마을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이 긴 능선은 금파리에서 고랑포 쪽으로 약 2km 정도를 말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장파리에 도장동 일부지역



적성면 시가지

을 편입하여 그대로 장파리라 하였다. 이때 연천군 적성면에 속하였다가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고,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의하여 파평면에 편입되었다. 장파리 지역을 아랫장마루라 하고 장파2리 지역을 웃장마루라 하며 긴등마루·장마루·장파라고도 한다.

10. 적성면(積城面)

현 적성면 지역은 삼국시대 초기 이 지역의 패권이 백제에서 고구려로 옮겨 갈 시기에 칠중성(七重城)에 속한 곳이었다. 칠중성은 그 뒤 삼국통일 후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중성현(重城縣)으로 개칭, 내소군(來蘇郡)에 소속되었다.

그 후 고려 초기 940년(고려 태조 23)에 적성현으로 개칭되었고, 995년(고려 성종 14) 개성부 관할기현에 소속되었다가 1018년(고려 현종 9)에 장단현 소속, 1063년(고려 문종 17) 다시 개성부 소속이 되었다. 1390년(고려 공양왕 2)에는 또 경기좌도로 이속되었다.

1895년(고종 32) 부군제 실시와 함께 군으로 승격되었다. 현 적성면 지역은 적성읍내였으므로 현내면이라 하여 읍내·관동·가월·검상·주월·설마 등 6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동면의 객현·백운·장평·송현·산덕·율포·어유지·적암·늘목의 9개 동리와

서면의 두지·마지·식현·도장·무건·답곡·자장·현석·장파의 9개 동리와 마전군 군내면의 삼화리와 장단군 고남면의 장좌리와 양주군 영근면의 하원리 일부와 파주군 파평면의 천천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적성면이라 하고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이 당시의 적성면은 구읍·가월·주월·설마·객현·율포·늘목·장현·어유지·적암·두지·마지·무건·식현·장파·답곡·자장·삼화·장좌 등 19개 리로 구성되었다.

그 후 1945년 11월 3일에는 파주군 관할이 되었으며, 1946년 2월 5일 남면이 양주군으로 분리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에 의하여 늘목리와 삼화리를 연천군 전곡면과 미산면에 넘겨주어 모두 17개 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장파리를 파평면에 넘겨주어 현재 면소재지인 마지리를 포함 모두 16개 리가 되었다. 그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월리(佳月里)

조선시대 적성군 동면 지역으로 감악산 북맥 자락이 임진강가 칠중성에 이르러 반달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곳에 있는 돈대에서 군졸들이 파수볼 때 강물에 비친 달이 너무 아름답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가월리의 능어리·으능정·골우물·징개울에 검상리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그대로 가월리라 해서 연천군 적성면에 소속되었다가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가를·가루리·갈울·갈월·기월동이라고도 한다.

2) 객현리(客峴里)

조선시대 적성군 동면 지역으로, 손(님)고개 밑이 되므로 손고개·선고개 또는 한자말로 객현동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객현리와 백운리를 병합하여 객현리라 해서 연천군 적성면에 소속되었다가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선고개라고도 한다.

3) 구읍리(舊邑里)

조선시대 적성군 동면 지역으로 옛 적성현 읍내가 되므로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읍내리 일부와 관동리를 병합하여 구읍리라 해서 연천군 적성면에 소속되었다가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지금은 구읍2리 지역의 마을을 구읍리라 부른다. 읍내라고도 한다.

4) 답곡리(畓谷里)

조선시대 적성군 서면 지역으로 논이 많은 골짜기여서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답곡리의 한들·곶지울·무송골·갈울·오리골에 도장리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그대로 답곡리라 하여 연천군 적성면에 소속되었다가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지금은 이곳 사람들이 식현2리에 정착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다. 논골이라고도 한다.

5) 두지리(斗只里)

조선시대 적성군 동면 지역으로 지형이 두지(뒤주의 사투리)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두지리는 원래 '두지(斗只)'가 아니고 '두기(頭耆)'라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두지포의 검바위·함박골·약우물에 검상리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그대로 두지리라 해서 적성면에 소속되었다. 그 후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6) 마지리(馬智里)

조선시대 적성군 서면 지역으로 지형이 마디처럼 생겼으므로 마디라 하였는데 발음이 변하여 마지로 되었다. 또 다른 설은 당의 장수 설인귀가 주월리에서 태어나 장성하여 용마와 갑옷, 투구, 칼을 얻은 뒤 적성 일대에서 훈련하였다 하는데, 그의 말발굽이 이곳 마지리를 가장 많이 지나갔다고 하여 마제리(馬蹄里)라 하였고, 발음이 변하여 마지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마지리에 동면의 읍내리·검상리의 각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그대로 마지리라 해서 연천군 적성면에 소속되었다. 그 후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7) 무건리(武建里)

조선시대 적성군 서면 지역으로 옛날 설인귀가 이곳 산골짜기에서 무술을 연마한 곳이라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그대로 무건리라 해서 연천군 적성면에 소속되었다.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8) 설마리(雪馬里)

조선시대 적성군 동면 지역으로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칠중성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말을 타고 훈련했다 하여, 설마치(薛馬馳), 또는 설인귀가 겨울에 눈이 쌓인 상봉을 거쳐 감악산봉으로 말을

달려 무예를 쌓았다고 하여 설마리(雪馬里)라고도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설마동을 설마리라 해서 연천군 적성면에 소속되었다가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9) 식현리(食峴里)

조선시대 적성군 서면 지역으로 밥재고개 밑에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식현리와 도장리 일부, 그리고 파평면의 천천리 일부지역이 병합되어 식현리라 하였고 연천군 적성면에 소속되었다. 그 후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식현1리와 2리 지역을 모두 밥재라 하는데 식현2리 지역의 마을은 6·25전쟁 이후에 생겼다.

10) 어유지리(魚遊池里)

조선시대 적성군 동면 지역으로 임진강가의 용못에 살았던 이무기를 고기에 비유하여 어유지리라고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그대로 어유지리라 하여 연천군 적성면에 소속되었다. 그 후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어유지·어여지라고도 한다.

11) 울포리(栗浦里)

조선시대 적성군 동면 지역으로 밤나무가 많은 포구이므로 밤개라 하고 한자말로 울포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그대로 울포리라 해서 연천군 적성면에 소속되었다. 그 후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12) 자장리(紫長里)

조선시대 적성군 서면 지역으로 국사봉 밑이 되므로 자하골 등으로 불렸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자장리와 현석리에 식현리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자장리라 해서 연천군 적성면에 소속되었다가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이곳의 임진강변에 붉은 찰흙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붉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1953년 휴전 이후 휴전선에 가까우므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자하골·자자기·자장이·재재이·자하리라고도 한다.

13) 장좌리(長佐里)

조선시대 장단군 고남면 지역으로 장자못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그

대로 장좌리라 해서 연천군 적성면에 소속되었다가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1953년 휴전 이후 휴전선이 가까워 군부대가 주둔하며 민간인은 살지 않고 농사만 짓고 있다. 장자울 · 장좌울 · 장좌동이라고도 한다.

14) 장현리(牆峴里)

조선시대 적성군 동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장평리 · 송현리 · 산덕리를 병합하여 장평(牆平)의 '장' 자와 송현(松峴)의 '현' 자를 따서 장현리라 하여 연천군 적성면에 소속되었다. 그 후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15) 적암리(赤岩里)

조선시대 적성군 동면 지역으로, 뒷산에 붉은 바위(赤岩)가 있으므로 붉은 이름이라고 하며, 고려 때 적암향이 있었기 때문에 적암향이라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적암리 일부와 양주군 영근면의 하원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연천군 적성면에 소속되었다가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16) 주월리(舟月里)

조선시대 적성군 동면 지역으로 원래 한야리라고 하였는데 고려 때 우왕과 공민왕이 궁녀들을 거느리고 달밤에 뱃놀이를 하였다 하여 붉은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그대로 주월리라 해서 연천군 적성면에 소속되었다. 그 후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11. 금촌동(金村洞)

지금의 금촌동은 백제 근초고왕(346~375) 시기에는 백제 세력권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천정구(泉井口)라는 지명으로 불렸다. 그 후 5세기 고구려에 귀속되었고, 군현제가 도입됨에 따라 천정구현이 되었다. 이후 557년(신라 진흥왕 18)에 신라의 북한산주(北漢山州)에 속하게 되었다. 삼국통일 후에는 한산주에 속하게 되었으며, 757년(신라 경덕왕 16)에는 지방제도가 정비되면서 교하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고려시대 당시 교하군은 처음에 양주, 1063년(고려 문종 17)에는 개성부, 그리고 1390년(고려



금촌1동 시가지 전경



금촌2동 시가지 전경

공양왕 2)에는 양광도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1394년(태조 3) 교하현으로 강등되어 한양과 원평군으로 그 소속이 변하다가, 1687년(숙종 13)에는 죄인의 출생지라는 이유로 혁파되기도 하였고, 1691년 다시 교하현으로 복구되었다. 1731년(영조 7) 교하 읍치(邑治)가 인조의 능인 장릉의 이전지로 결정되면서 다시 교하군으로 승격되었으며, 1895년(고종 32) 부군제가 실시되면서 이 지역은 일시 파주에 속했다가 교하군으로 복귀하였다.

현 금촌동 지역은 1899년(광무 3) 당시 교하군 아동면·현내면 일대였는데,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때 교하군 아동면의 신금촌·야동리·아동리·금릉리와 현내면의 맥금리·검산리 지역, 지석면의 하지석리의 일부지역, 청암면의 갈현리 일부지역, 파주군 자곡면의 용은동 일부지역이 병합되어 아동면이라 하였다. 이후 6·25전쟁 와중인 1·4후퇴 당시에 군청이 문산리에서 아동면 금촌리로 옮겨오면서 군의 행정중심지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에 의하여 금촌읍으로 승격하였다. 금촌이라는 이름은 일제가 경의선 철도 부설 당시 금촌리의 옛 이름인 '새말'이라는 말을 '쇠말'로 잘못 알아들어 '금촌'으로 명기한데서 유래한다. 1996년 파주군이 도농복합시인 파주시로 승격되면서 금촌읍이 금촌동으로 바뀌었고, 금촌1동(금능·아동·금촌)과 금촌2동(야동·맥금·검산)으로 나뉘어 모두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촌동을 구성하고 있는 6개 동의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검산동(檢山洞)

조선시대 교하군 현내면·하지석리 지역으로 신령스런 월룡산 밑에 자리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또 신숙주의 아버지 신장(申樞)의 뒷자리를 물색하기 위해 월룡산 남맥 오장봉 일대를 살살이 검색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교하군 현내면 검산리의 일부와 하지석리 일부지역이 병합되었으며, 파주군 아동면에 소속되었다. 1996년 파주시 승격과 함께 검산동이 되었다.

2) 금능동(金陵洞)

조선시대 교하군 현내면 지역으로 쇠 또는 금이 묻혔다 하여 쇠재(金尺)·쇠재(金城)·금척·금성이라 하였다. 본래 금성천에 상선이 오르내리던 전성기에는 금화로 둘러싸였다 하여 금성리라고 하다가 숙종 때 농자리를 잡은 후 금능리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과 1731년(영조 7) 장릉을 갈현리로 천묘한 후 교하군 관아를 이곳으로 이전하고 당초 '금'자와 '능'자를 따서 금능리로 개칭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금능리 일부지역이 분리된 채 그대로 금릉리라 하고 파주군 아동면에 소속되었으며, 1996년 파주시 승격과 함께 금능동이 되었다.

3) 금촌동(金村洞)

조선시대 교하군 아동면 지역으로 새로 조성된 마을이므로 새말·신촌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세말·쇠말·금촌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교하군 아동면의 신금촌·야동리·아동리·금릉리 각 일부지역이 병합, 금촌리가 되고 파주군 아동면에 소속되었다.

4) 맥금동(陌金洞)

조선시대 교하군 현내면 지역으로 매혹이 많은 구미(후미)였던 관계로 맥그미·맥금이라 하였다. 본래 이 지역 일대가 보리밭이 많아 보리가 익을 무렵 바람이 불면 황금물결이 일어나는 듯했다 하여 맥금(麥金)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교하군 현내면 맥금리에 검산리 일부, 청암면 갈현리의 일부, 지석면 하지석리의 일부가 편입되었으며, 맥금리는 파주군 아동면에 소속되었다.

5) 아동동(衙洞洞)

조선시대 교하군 아동면 지역으로 교하군의 관아가 있었으므로 관앗골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아동리·야동리·신금촌리·영태리의 각 일부지역이 병합, 아동리가 되고 파주군 아동면에 소속되었다. 앓골·앗골·아동이라고도 한다.

6) 야동동(冶洞洞)

조선시대 교하군 아동면 지역으로 용산골에 천정구현 관아가 있을 당시 군기와 농기구를 만들던 대규모의 대장간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야동리·신금촌리 일부와 지석면의 하지석리 일부, 그리고 파주군 자곡면의 용은동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야동리라 해서 파주군 아동면에 소속되었다. 풀무골이라고도 한다.

12. 군내면(郡內面)·장단면(長湍面)·진동면(津東面)·진서면(津西面)

이 지역은 삼한시대 때는 습천군(隰川郡)에, 백제 근초고왕 시기에는 백제의 야아현(夜牙縣)에 해당되는 곳이다. 그 뒤 475년(고구려 장수왕 63) 고구려가 이곳을 복속, 장천성현(長淺城縣)으로 하였고, 삼국통일 후 757년(신라 경덕왕 16) 장단군으로 개칭 우봉현(牛峯縣)에 소속되었다.

고려전기 995년(고려 성종 14)에는 개성부 관할의 기현에 속하게 되었고, 1001년(고려 목종 4)에는 시종 한언공의 본관이라 하여 단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지방통치제도가 확립되었던 1018

년(고려 현종 9)에는 다시 장단현으로 되어 적성·파평 등 7개 현을 관할하면서 상서도성(尙書都省)의 직속이 되었다. 이후 1390년(고려 공양왕 2)에는 경기좌도에 소속되었다. 조선 건국 후 1414년(태종 14)에 임강현을 병합하여 장입현이 되었다가 다시 장단현으로 되고, 1435년에는 원 평부에 이속되었다가 1469년(예종 1)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그 뒤 혁파와 격하, 복구가 거듭되다가 1895년(고종 32) 부군제 실시와 함께 군으로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장단군은 전체 10면 67리의 체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현재의 지명인 군내·진동·진서의 명칭이 나타나며 장단면 지역은 진남면 지역으로 편제되고 있다. 그런데 1945년 국토의 분단과 함께 5개 면이 북한 영토로 편입되고, 5개 면 41개 리만 남게 되었다. 그 후 군내면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에 의하여 파주군 임진면(현 문산읍)에 편입되었고, 1972년 12월 28일에는 법률 제2395호에 의해 장단·진동·진서면이 함께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이 지역에 민간인이 거주하게 된 것은 1972년 4월 육군 제1사단 전역장병 14명이 영농을 시작하면서 서부터이며, 1973년 3월 종합개발에 착수하여 80여 세대가 입주하여 통일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1979년 5월 1일 군 조례 제610호에 의하여 군내출장소가 설치되어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백연리와 조산리를 포함하여 4개 면을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4개 면 모두 면사무소가 없고 군내면 7개 리, 장단면 8개 리, 진동면 5개 리, 진서면 2개 리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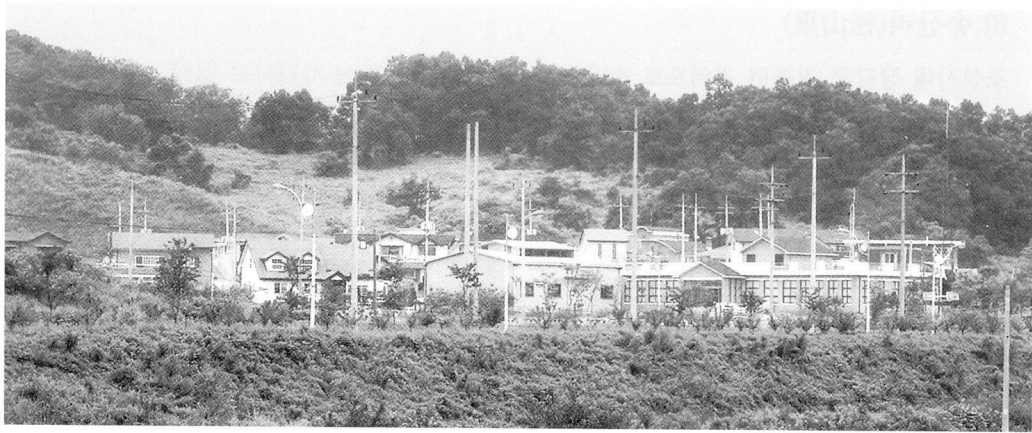
먼저 군내면 7개 리의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방목리(芳木里)

조선시대 장단군 진현내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진현내면의 방목리·동하리·서하리 일부와 진동면의 동파리·서곡리의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방목리라 해서 군내면에 소속되었다. 1963년 파주군 임진면(현 문산읍)에 폐합되었다가 1972년 군내면에 편입되었다. 지금은 민간인은 살지 않고 드나들면서 농사만 짓고 있다. 방모기·방무기라고도 한다.

2) 백연리(白蓮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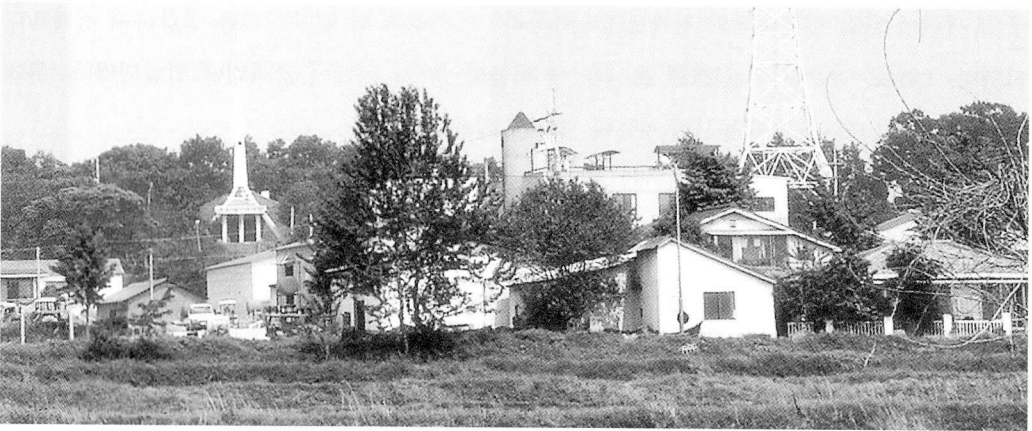
조선시대 장단군 진현내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진현내면의 백연리·서상리·서하리의 일부와 중서면의 도라산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백연리라 해서 군내면에 소속되었다. 1963년 파주군 임진면(현 문산읍)에 편입되었다가 1972년 군내면에 편입되었다.



해마루촌 전경



통일촌 전경



대성동 전경

3) 송산리(松山里)

조선시대 장단군 진북면 지역으로 소나무가 울창했던 산 밑에 자리하고 있어 송산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진북면의 송산리·중서면의 서장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송산리라 하여 군내면에 소속되었다. 지금은 민간인은 살지 않고 드나들면서 농사만 짓고 있다.

4) 읍내리(邑內里)

조선시대 장단군 진현내면 지역으로 장단 고을이 있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진현내면의 동하리·서하리·서상리·방목리·정자포리의 각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읍내리라 하여 군내면에 소속되었다. 1963년 파주군 임진면(현 문산읍)에 폐합되었다가 1972년 군내면에 편입되었다. 휴전 이후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농사만 짓는다.

5) 점원리(點元里)

조선시대 장단군 진현내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진현내면의 점희릉리와 원당리 일부, 중서면의 도라산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점희릉(點希陵)의 '점'자와 원당(元堂)의 '원'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1963년 파주군 임진면(현 문산읍)에 폐합되었다가 1972년 군내면에 편입되었다. 휴전 이후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농사만 짓는다.

6) 정자리(亭子里)

조선시대 장단군 진현내면 지역으로, 정자포가에 자리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진현내면의 정자포리·서하리·백연리의 각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정자리라 하였다. 1963년 파주군 임진면(현 문산읍)에 폐합되었다가 1972년 군내면에 편입되었다. 휴전 이후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농사만 짓는다. 정자포리라고도 한다.

7) 조산리(造山里)

조선시대 장단군 진북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진북면 조산리·송산리 일부와 개성군 동면 백동음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군내면 조산리가 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에 의거하여 파주군 임진면(현 문산읍)에 편입되었다가 1972년 12월 28일 법률 제2395호에 의거하여 군내면에 편입되었다. 조산동이라고도 불린다.

다음은 장단면을 구성하고 있는 8개 리의 유래이다.

1) 강정리(江井里)

조선시대 상도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강연리와 굴정리 일부를 병합하여 강연(江連)에서 '강' 자와 굴정(堀井)에서 '정' 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2) 거곡리(巨谷里)

조선시대 상도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거로리와 금곡리 일부를 병합하여 거로리(巨路里)의 '거' 자와 금곡리(金谷里)의 '곡' 자를 따서 거곡리라 하였다.

3) 노상리(蘆上里)

조선시대 중서·상도·진현내면 지역으로 가루개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노상리·노하리·도라산리의 각 일부와 상도면 금곡리 일부, 진현내면의 백연리 일부를 병합하여 노상리라 하였다. 윗가루개라고도 한다.

4) 노하리(蘆下里)

조선시대 중서·하도면 지역으로 가루개 아래쪽이 되므로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노하리·노상리 일부와 하도면의 덕산리 일부, 풍덕군 중면 창내리 일부를 병합하여 노하리라 하였다. 아랫가루개라고도 한다.

5) 도라산리(都羅山里)

조선시대 중서·진현내면 지역으로 도라산 밑에 자리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중서면 도라산리 일부와 진현내면의 백연리·원당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도라산리라 하였다. 도리미·도라미라고도 한다.

6) 동장리(東場里)

조선시대 중서면 지역으로 장말 동쪽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개편 때 중서면 동장리·서장리·노하리·도라산리의 각 일부를 병합해 동장리가 됐다. 동장말·동장촌이라고도 한다.

7) 석곶리(石串里)

조선시대 상도면 지역으로 곶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석곶리·굴정리 일부를 편입하여 그대로 석곶리라 하였다. 돌고지·돌곶이라고도 한다.

8) 정동리(井洞里)

조선시대 하도·상도·중서면 지역으로 큰 우물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하도면의 정동리에 상도면의 금곡리 일부, 중서면 노하리의 각 일부를 편입하여 그대로 정동리라 하였다. 우물골이라고도 한다.

진동면을 구성하고 있는 5개 리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1) 동파리(東坡里)

조선시대 진동·진현내면 지역으로 동파골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동파리·서곡리 일부와 진현내면의 정자포리 일부를 병합하여 동파리라 하였다.

2) 서곡리(瑞谷里)

조선시대 진동·장북·장서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진동면 서곡리 일부와 장북면의 두매동리, 장서면의 초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서곡리라 하였다.

3) 용산리(龍山里)

조선시대 장서·진동면 지역으로 주위의 산이 용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산리 일부와 진동면의 하포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용산리라 하였다.

4) 초리(哨里)

조선시대 장서·진동면 지역으로 지형이 초리(꼬리)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장서면 초리·용산리 일부와 진동면의 하포리·서곡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용산리라 하였다.

5) 하포리(下浦里)

조선시대 장서·장서면 지역으로, 임진강가에 있으므로 아랫개 또는 하포리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장서면의 초리·용산리 각 일부와 진동면의 하포리 일부를 병합하여 하포리라 하였다. 아랫개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진서면을 구성하고 있는 2개 리의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금릉리(金陵里)

조선시대 송남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그대로 금릉리라 해서 진서면에 소속되었다. 1972년 파주군에 편입되었으나 사람은 살지 않는다. 금릉골·금릉동이라고도 한다.

2) 어룡리(魚龍里)

조선시대 송남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어룡리라 해서 진서면에 편입되었다. 1972년 파주군에 편입되었으나 사람은 사라지 않는다. 어룡개·어룡포라고도 한다.

제2절 전설과 설화

1. 장자뭇의 전설

장자뭇은 고랑포 강 건너 맞은 편 임진강가 파평면 장파리에 위치한다. 옛날 이 장자뭇 자리에 송씨라는 부자가 살았다. 송씨는 부자이면서 인색하여 중이 동냥을 와도 시주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중이 시주를 하러오자 송부자는 여느 때와 같이 시주를 거절하였다. “시주할 쌀이 어디 있어, 말뚝도 없다. 말뚝이라도 갖고 싶으면 주겠다.” 그러자 중은 그 말뚝이라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업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시아버지 송씨 몰래 시주를 하였다. “시아버지의 행위를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주를 받아든 중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제일 귀중히 여

기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가지고 나오시오.” 이윽고 며느리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베를 머리에 이고 나왔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 중과 며느리는 고랑포 쪽을 향해 건다가 임진강 가에 이르렀다. 이때 뒤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가 궁급증을 참지 못하여 뒤를 돌아본 순간 그대로 화석이 되었다 한다. 그 화석은 베를 머리에 이고 있는 상이다.

후세에 이 전설은 댜댜이 이어 나가 고랑포 나루터 입구에 베를 머리에 인 여인의 목조각이 오랜 세월 세워져 있었다. 그 후 이것은 재봉틀을 머리에 인 여인상으로 바뀌어져서 아래 고랑포 정미소 마당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장자란 부자를 말하는 것이다. 부자와 중 사이에 옛날부터 시주에 대한 논쟁이 더러 있었던 모양이다. 시주를 거절한 인색한 부자에 대한 경중으로 전국의 후미진 곳에 있는 곳은 거의가 장자 못이요, 또 이와 비슷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2. 두류봉 황새 명당

조리읍 대원리 소재 용문산 최북단 북맥 별판 가운데로 우뚝 솟은 봉우리는 형체가 마치 큰 배의 닻과 같으며 뱃머리가 별판을 향하여 떠나가려는 형상이다.

옛날 이곳은 송림이 우거져 많은 학들이 깃들어 있었다 한다. 이 마을에 거주하던 김태은(김수로왕의 후손)의 선조는 어느 날 아침 학들이 소란을 피우며 왔다 갔다 날아드는 것을 유심히 살피니 큰 구렁이가 노송 위 학의 등지에 있는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는 지라 가련한 생각 끝에 활을 급히 가지고 나와 구렁이를 쏘아 맞히니 워낙 대들보같이 큰 구렁이라 소나무 가지가 찢어지면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구렁이가 활을 쏜 사람에게 독을 뽑았다. 그리하여 활을 쏜 사람의 전신이 통통 부어 죽게 되자 학들이 날아와 이쪽저쪽 몸뚱이를 쪼며 독기를 뽑았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앓다가 세상을 뜨게 되었다.

활을 쏜 사람이 아까운 나이에 억울하게 죽으니 가족들과 동리 사람들은 이를 측은히 여겨 눈물을 흘리며 초상을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발인할 즈음에 별안간 황새들이 몰려와 눈물을 흘리며 상여를 인도하고자 날아가다 앓고 하여, 기이하게 여긴 동리 사람들은 이들 학에 발을 맞춰 인도하는 데로 따라가니 공룡산 북맥 외단 두류봉 하서향의 아늑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같은 마을에 사는 흥해 배씨의 종산인 관계로 문중에서 논의 끝에 양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

자리에 땅을 파니 커다란 반석이 있는 지라 그 위에 그대로 묘를 쓰려 하였다. 그러나 광중구덩의 심고가 너무 얁아 반석을 꼭깡이로 쪼아 더 깊이 파서 묘를 쓰려고 하였다. 그런데 반석을 쪼아 헤치는 순간 갑자기 주위에 안개가 자욱해지며 금붕어가 하늘로 날아갔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묘를 쓰게 되었는데 그 후 자손들이 현재까지 연이어 선천적으로 애꾸눈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후 사람들이 이 자리를 학이 잡아준 무덤 또는 황새명당이라고 불렀다 한다.

3. 호대감 이야기

옛날 탄현면 성동리 요풍동에 전주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그들은 나무를 하다가 쉬는 틈을 타서 돌을 산 밑으로 굴리면서 장난을 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씨가 굴린 돌이 밑으로 굴러가 산 중턱에 있던 호랑이굴을 건드렸다. 그러자 깜짝 놀란 호랑이는 굴 밖으로 뛰어 나와 사람들을 쫓아오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기겁을 하여 나뭇짐을 나둔 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달아났다. 그러나 달아는데 한계가 있어 사람들은 도망가기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그 호랑이는 쫓아와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돌을 굴린 이씨의 발뒤꿈치를 물어서 죽인 뒤 돌아가 버렸다. 그 이후 요풍동 사람들은 그의 혼을 달래주기 위해 지금까지도 3년에 한 번씩 호대감이라 하여 전주이씨의 조상을 위로한다고 한다.

4. 심학산에 얽힌 전설

교하읍 동패리에 소재하고 있는 심학산은 한강하류에 있는 산으로 동편은 동패리, 서편은 서패리, 남편은 산남리 등 3개 리에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로 우뚝 솟은 봉우리와 동체는 마치 대호가 옆으로 누워있는 형상인 것 같기도 하며, 어찌 보면 물위에 떠 있는 군함같기도 하다. 산꼭대기에는 문천무만(文千武萬)의 명당이라는 풍수설과 함께 이 산에 암장(暗葬)하면 산이 울림과 동시에 동리사람들에게 질병과 이변이 있어 주민들이 총동원되어 발굴하였다 한다.

산정에는 신선암(神仙岩)이라는 4.5평 되는 마당바위가 있으며, 범바위·투구바위·아참바위·통소바위 등이 산재하고 있다.

옛날에는 이 산 주위로 물이 흘러 한강 가운데 있는 섬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강 물을 막고

있다 하여 당초에는 수막산(水漠山)으로 불리었으며 조선시대에 내려와서는 홍수가 있을 때 한강물과 조수분포로 인해 수막산이 물속에 잠기게 되므로 깊은 물에 들어갔다 하여 심악산(深嶽山)이라 불리게 되었다. 경기 오악(송악·감악·심악·북악·관악) 중의 하나로 불리고 있다.

그 후 조선조 숙종 때 왕궁에서 학을 기르다가 두 마리가 도망을 치자 궁궐에서는 이 학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찾으러 다니다가 심악산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잡아간 후 숙종이 이 산에서 학을 찾았다 하여 심학산으로 명명하게 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향간에는 수막산으로 불리고 있으나 각종 문헌에는 심학산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 심학산 동편 중턱에는 유명한 법성사(法成寺)가 있고 그 위에는 속병이 잘 낫는다는 신기한 약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 들고 있다. 또한 이 산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 송구봉이 정기를 받아 탄생하여 성장한 명산이다. 일설에는 송구봉이 출생할 때 정기를 흡수하여 이 산의 초목이 일시 고사(枯死)하였다 한다.

5. 파평윤씨 용연(坡平尹氏 龍淵)

파평면 늘노리에는 파평산이 있고, 그 산기슭 북쪽 길옆에 2,000여 평이나 되는 용연이라는 큰 연못이 있으니 이곳이 곧 파평윤씨 발상의 전설이 담겨져 내려오는 곳이다.

윤신달(尹莘達)은 파평윤씨의 시조로 고려 태조 왕건의 손위 동서로 고려의 개국 공신이다. 때는 신라 말 893년(신라 진성여왕 7) 8월 15일 한가위 날이었다. 이 용연 일대에는 난데없이 하늘에 구름이 뒤덮이고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게 끼더니 뇌성벽력이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 하늘에서 무슨 큰일이라도 내리지 않나 하고 걱정이 되어 분향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기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때마침 윤은이란 할머니가 문득 못 가운데를 보니 안개는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주위를 뒤덮고 있었는데, 별안간 못에서 빛이 솟으면서 금궤 하나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윤노파는 “저 금궤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하고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두려움과 호기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마음을 다 잡고 그 상자를 건져 열어 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너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상자를 열어본 윤노파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찬란한 금궤 속에는 오색의 아름다운 깃털에 싸인 옥동자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옥동자를 살펴보니 좌우 어깨 위에는 일월을 상징하는 붉은 점이 있고, 양쪽 겨드랑이에는 81개의 비늘이 나 있었으며, 또한 발에는 북두칠성처럼 일곱 개의 흑점이 있어 황홀한 광채를 내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손바닥에는 윤자 무늬가 있었다고 한다. 윤노파는

이 아기를 집에 데려다가 잘 거두어 길렀으며, 이 아기는 잘 생긴 얼굴에 자랄수록 영특하고 인물이 수려했다. 그 아이는 장성하여 큰 벼슬을 지냈는데 그가 바로 파평윤씨의 시조라고 한다.

파평윤씨 대종회에서 펴낸 『윤관장군일대기(尹瓘將軍一代記)』에 의하면, 윤관(시조의 현손)이 함흥 선덕진광포(宣德津廣浦)에서 거란군이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여 강가에 이르렀을 때 잉어 떼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강을 건너 탈출했는데 적병이 뒤쫓아 왔을 때는 잉어 떼가 이미 흩어져 버렸다는 고사가 있다. 윤씨들은 이 고사에 따라 시조에 대한 활명지은(活命之恩)이 있다 하여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또 한편 파평윤씨는 시조의 거드랑이에 잉어의 비늘이 있었다는 데에서 잉어를 먹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 시조설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후손들이 그 연못에 「파평윤씨 용연」이란 비를 세우고 해마다 제사를 올리고 있다.

6. 신화동과 쇠곶나루(金串津)에 얽힌 전설

이 지역은 곡룡천 맑은 냇물이 쇠재독암골을 거쳐 흐르는 곳으로 금촌에서 교하로 건너다니는 쇠곶나루를 거치게 된다. 옛날 교하군청이 금성리에 있을 당시 상선이 쇠재를 오르내렸으나 매년 홍수로 말미암아 쇠재 개울이 매몰되자 이곳 쇠곶나루에 상선이 머무르게 되니 현 은행나무 사두혈(蛇頭血)이 있는 지역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시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지역 내에 많은 돈이 득실거렸다 하며 금이 꽃힌 쇠곶이라 칭하게 되었으나 구한말 행정구역 변경 당시 뱀꼬리 부분에 신화만발형(新花滿發型)의 산소자리가 있다는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쇠곶이 신화로 개칭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7. 금성리(金城里)에 얽힌 전설

이 지역은 곡룡천이 독암골을 거쳐 흐르는 학령산 서맥 기슭에 형성된 마을로 상선이 오르내리고 상지석으로 건너다니던 쇠재나루가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1731년(영조 7) 인조 능인 장릉(長陵)을 운천리에서 갈현리로 천봉하게 되자 교하현청이 교하군으로 승격되고 이곳으로 청사를 옮기게 되자 상선이 더욱 빈번할 뿐 아니라 시장이 개설되어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 구한말 행정구역 변경 당시 쇠재개울을 따라 후면에 능선이 길게 내려뻗친 형국을 보아 금성리의 금(金)자와 능선의 능(陵)자를 따서 금릉리로 개칭되었다고 하나 지금까지도 쇠재라 부르고 있다. 삼문장(운

문거·윤순거·윤선거)으로 이름을 떨쳤던 윤선거가 향교에서 훈학을 하면서 제자를 양성하였던 신곡서원(新谷書院)이 있던 부락을 서원말, 향교가 있는 부락을 향교마을로 부르고 있다.

8. 검산리와 조음발동의 유래

신성용(申成用)은 고려 때 문과에 급제하여 검교를 역임하였으며, 누대를 고령에서 세거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고령으로 하였다. 7세손인 엄헌공 신장(嚴軒公 申墻)은 1382년(고려 우왕 8)에 탄생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고 학문이 능숙하여 1394년(태조 3) 부시에 장원, 1402년(태종 2)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으로 있다가 퇴임 후 전라도 나주로 낙향하여 서당에서 유생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던 중 1420년(세종 2) 직제학에 제수되자 처와 오형제(맹주·중주·숙주·송주·말주)를 두고 한양으로 상경, 이어 공조참판으로 승진하였고 「남산지곡(南山之曲)」을 짓는 등 문학과 유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글씨도 잘 써서 대제학에 발탁되어 오래 머물렀으나 1433년 52세로 세상을 떠났다. 나주에서 친리길이라 처와 아들 맹주(21세)·중주(18세)만이 상경, 장례를 이곳(현 검산동 조음밭이)에 모시게 되어 시묘를 마치고 난 얼마 후 그 처마저 돌아가니 역시 맹주와 중주 형제가 올라와 쌍분으로 장례를 모시게 되었다. 시묘를 마치고 돌아갈 무렵 궁중이 어수선한 때라 묘비를 파묻고 분묘와 묘역을 파헤쳐 흔적을 없애고 암표만을 남기고 고향인 나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맹주와 중주가 조사(早死)하여 묘소를 찾을 길 없이 실전되어 오던 중 그 3남인 숙주가 1439년 등과하여 단종 당시 도승지를 역임하다 세조가 등극하자 병조판서에 오르고 1457년(세조 3) 좌찬성, 이어 1458년 우의정으로 승진하는 등 가세가 번창하자 동생인 송주·말주를 시켜 말로만 들었던 지역과 선친 묘소를 대강 일러주면서 기필코 찾도록 하였다.

두 형제는 즉시 활을 메고 월룡산을 두루 이 잡듯이 찾다가 어느 날 이곳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중이 집집마다 팽매기(중 시주 밥그릇)를 치며 시주를 받는 것을 보고 ‘웁지! 이 도승에게 물어보리라’ 하고 달려가 “혹시 신장 묘소를 아십니까?” 물으니, 팽매기를 두드리고 합장하며 말하기를 “이 산 윗골짜기에 모셨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며 사라졌다. 허둥지둥 올라가다 마침 평한 마리가 날아가매 활을 쏘니 묘소 있는 곳에 떨어지는지라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근방 산혈 맥을 살펴보니 묘소가 있을 법 하였다. 이에 여기저기 흙을 파는 도중 큰 돌이 나와 헤치니 비석이라. 이를 씻어 자세히 본즉 선친 신장의 묘비가 틀림없었다. 수십 일 동안 고생 끝에 찾게 되어 기

뿐 마음으로 상경하여 형인 숙주에게 사연을 고한 후 즉시 분묘를 하고 비석을 세워 시향을 만들었다 한다. 그 후 신장묘를 찾기 위해 이 산 전체를 검색하였다 하여 검산(檢山)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도승의 팽매기소리의 도움을 받았다 하여 조음발(助音鉢)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9. 임진나루의 뱃사공

임진나루는 옛날 한양에서 송도를 거쳐 의주로 가는 국도로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다. 이곳의 뱃사공들은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옷차림과 거동만 보아도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 맞추기로 유명하였다. 하루는 다른 곳에서 뱃사공 노릇을 하는 짓곳은 사람이 얼마나 잘 알아보는지 임진나루 뱃사공을 시험하고자 신분을 속이고 양반으로 가장, 의관을 갖추고 그를 찾아 “여보게, 나를 좀 배로 건너 주게.”하고 반말을 하였다. 그러자 김씨라는 뱃사공은 부지런히 배를 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누구보고 반말이냐며 화를 내는지라 변장한 사공이 “이놈아! 감히 누구 안전에서 행패냐!” 하니, “너는 아무리 양반인 체 하여도 나와 같은 뱃놈에 불과하다.” 하였다. 그래 “네가 어찌 그런 것을 잘 아느냐?” 하고 반문하자 임진강의 뱃사공이 하는 말이 “너의 수염이 강바람에 한쪽으로 구부러졌고 노를 젓느라 고개가 돌아간 것을 보아 너는 나와 같은 뱃놈이다.” 하니 참으로 귀신같이 맞힌다면서 서로 깔깔대고 웃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

10. 봉서산(鳳棲山)에 얽힌 전설

봉서산은 봉황새가 깃들어 즐기며 노래하던 곳이라는 뜻이다. 이 산 정상에는 두 개의 우물이 있는데 하나는 장사가 먹었다는 장사우물로서 산성에서 사용하였고, 또 하나는 전대우물로서 수원이 많은 약소로 현재 문산과 파주읍 주민들이 즐겨 마시고 있다. 그런데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명주실 한 타래를 풀어도 닿지 않을 만큼 깊어 측량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이 산머루에는 장사가 가지고 놀던 공깃돌을 몇 개 포개놓은 공기바위와 용마바위 등이 별관 가운데 우뚝 솟아 있고 해발 300m 가량 되는 산림이 우거진 아름다운 명산이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문산포구를 바라보는 군사요충지로, 임진왜란 당시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승전을 거두고 이 산성으로 돌아와 수비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군사기지로서 산성 주위가 훼손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11. 옥석동(玉石洞)의 유래

여말선초에 조연(趙涓)이란 충신이 있었다. 태조의 생질로서 일생동안 우국충정을 하다 1429년(세종 11) 돌아가시니 옥석비를 하사하여 예장을 치르게 되자 묘소를 안치한 마을을 옥석동이라 부른다고 전해지고 있다.

1519년(중종 14) 그의 현손 조광조가 왕도정치 및 개혁정치를 펴다가 반대세력들이 궁중의 오동나무에 주(走), 초(肖), 위(爲), 왕(王)이란 글자모양으로 꿀을 발라놓고(내용인즉 走자와 肖자가 합치니 趙자가 되어 조광조가 왕을 속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뜻이다) 벌레가 꿀을 먹게 하여 주초위왕(走肖爲王)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한 후 이를 핑계로 조광조를 모함하니 조광조는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게 되었다.

조광조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을 폐하려 하였다는 역적의 누명을 쓰고 문중의 뿌리까지 뽑힐 지경에 이르는 한편, 조상의 묘를 파헤쳐 시신을 꺼내 목을 베는 부관참시의 지경에 이르자 옥석비의 주인인 조연의 묘소까지 위협을 느껴 문중에서는 옥비를 마을 어귀 논 가운데 묻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 후 당시의 상황을 까맣게 잊을 만큼 세월이 흘러 끝내는 자손들이 조연의 묘소 위치까지 잊게 되었고 문중에서는 조상을 모시지 못하는 죄를 스스로 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문중의 누군가가 황해도 어느 고을 군수로 행차하던 중 지금의 파주지역에서 머물다가 꿈속에 백마를 탄 신령이 나타나 서쪽 방향을 가리키며 “저 방향에 너희가 찾는 묘소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현몽을 꾸게 되었다. 이상하게 여기며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흰 눈이 무릎까지 왔는데 새벽길에 서쪽방향으로 말발자국이 나 있었다. 꿈속에서 신령이 말한 방향으로 나타난 말발자국을 따라 십리를 가니 말발자국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앞에 묘소가 있어 파보니 그것이 곧 태조의 생질인 조연의 묘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자손들은 묘소를 정비하고 숨겨진 옥비를 찾고자 수많은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결국 찾지는 못하고 한양조씨 일가는 지금도 마을 어귀 한 곳에 그 옥비가 묻혀있을 것이라 믿고 들에 나가면 조상의 얼이 숨긴 그 옥비가 흑시나 삽자루 밑에 걸리거나 앓나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12. 오금리에 얽힌 전설

조선 세조 때에 당시 우참찬이며 밀산군(密山君)으로 있었던 박중손(朴仲孫)이 1466년(세조 12) 55세로 돌아가시니 뗏자리를 선택하고자 명지사가 명당자리를 물색 중 이곳 월룡산하 아가 산내령에 명지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국사봉을 지나 임진강 변 북맥을 따라 더듬어 내려가면서 매봉재를 거쳐 신선봉·무장봉을 지나 구미봉까지 살살이 뒤져 보았으나 명지를 찾지 못하였다. 호피산 머리부락에 이르러 서성거리며 “내 눈이 멀었구나.” 하며 스스로 꾸짖어 한탄을 하던 중 갑자기 매봉재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려 이상히 생각하고 다시 까마귀 우는 곳으로 올라가 자세히 살피니 대지가 있는지라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 눈이 멀었도다. 까마귀 너는 이제 아름답고 어여쁘구나. 나를 도와 명지를 일러 주었도다.” 하였다.

이로부터 후일 호피산 아래 있는 부락을 질오목, 매봉재 있는 마을은 오금리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로 인하여 밀양박씨 후손들이 대가를 이루어 묘 아래에 살고 있다.

13. 얼음실 한장굴에 얽힌 전설

탄현면 범흥4리 벌두매산 골짜기 호장산 아래 오솔길 옆에는 큰 바위가 있다. 옛날 피난을 가던 부부가 힘겹게 피난 보따리를 이고지고 가다가 이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따라 오던 아이가 울며 물을 달라고 보채니 여름 날씨가 너무나 짜증이 난 그들 부부는 달래며 하는 말이 “이 아래 가서 물을 떠 올 터이니 이 바위 곁에서 기다리거라.” 하고 내려가던 중 갑자기 군대가 몰려와 허둥지둥 그냥 떠나버렸다 한다. 그리하여 기다리던 아이는 발을 동동 구르다 지쳐 한장굴 속에서 굶어죽고 말았는데 이 아이의 죽은 혼이 바위에 영접해서 한여름일지라도 이 바위에는 얼음같이 찬 물이 흘러내리게 되었으며 이 골짜기에 12우물이 생겨나 이 골짜기 전담엔 용수가 충분할 뿐 아니라 부락민들이 식수로도 이용하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이 부락에는 정종의 아들 순평군(順平君)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14. 거북바위에 얽힌 전설

심악산(深岳山)은 옛날 경기 5악(송악·감악·심악·북악·관악)으로 유명한 명산이다. 이 산

은 상봉과 중봉, 끝봉이 북에서 남쪽으로 나란히 솟아 있는데 봉우리마다 자그마한 내령이 뻗어 있다.

산남리 47번지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 송사련(정승 안당의 서고모의 아들)이 어느 여름날 중봉에 있는 거북바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아래 내령 거북피에서 두 마리의 청룡과 황룡이 올라와 자기 가슴에 안기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인지라 이상하게 생각하며 하산하였다. 이날 밤 바로 안당 정승택에 기고가 있어서 일을 도와준 뒤 밤중이 지나 비녀(연일 정씨)가 제사 음식을 가지고 홀로 있는 자기 방으로 들어오자 설레는 마음에 욕정을 참지 못해 겁탈한 후 같이 살게 되었는데 당대 유명한 대학사 구봉 송익필(宋翼弼), 송한필(宋翰弼)을 생산하였다 한다.

15. 덕암산 가재골의 채동지(蔡同志)

옛날 조리읍 덕암산 아래 가재골에 떠돌이 채동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구척장신에 똑심이 센 장사로서 미련하기가 소 같으며 한 끼에 한 말 쌀을 먹어야 한다는 사람이었다. 채동지는 처자식도 없고 재산과 집도 없어 여러 동리를 다니면서 걸식을 하며 힘든 일을 도와주고 밥을 얻어다가 가재골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 움푹이를 하고 살고 있었다 한다.

힘이 워낙 세고 미련하여 사람들이 밧줄로 머리를 동여매고 가운데다가 췌기를 틀어넣어 비틀어도, 심지어 인두로 지저도 화를 내는 일이 없으며 아픈 표정 없이 손으로 슬그머니 밀어 제치며 웃어 버리는 위인이었다. 그리하여 춘하추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덕암산 기슭 가재골에서 살다가 소식 없이 사라졌는데 인근 사람들은 그를 정체를 알 수 없는 도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겨울에 눈이 올 때 채동지가 자고 있던 주위는 눈이 내리는 즉시 녹아 없어졌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16. 반석나루에 얽힌 전설

한강 하류에 위치한 교하읍 신촌리 지역 강변에 안방같이 큰 바위가 깔려 있어 반석나루라는 명칭이 붙여져 내려오고 있다. 이 나루아래 임진강과 송도에서 내려오는 사천강이 합류하여 한강과 마주치는 삼도품은 개포·김포·강화를 거쳐 서해로 왕래하는 상선배들이 간만에 물때를 맞추기 위하여 쉬어가는 중요한 나루로서 수운의 요충지이다. 그리하여 선인(船人)들의 안식처로 기분풀이를 조성하고 많은 돈이 오가고 주막과 시장이 변화하였으며 상도의와 상술, 정보를



반석나루

교환하던 장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38선이 가로막혀 불행히도 왕래를 못하는 군사통제 구역이 된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17. 사근절의 유래

조리읍 오산리 안동 권씨 종산 아래 마치 병풍을 두른 듯 아늑한 구릉지가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곳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곳은 고려 말엽에 건립한 아담한 절이 있었다는 절터이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절터골, 또는 연못이 있어 연못재라 칭하기도 하였다 한다.

조선조 중엽 이 부락에 사대독자인 박첨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5대 독자가 결혼 후 삼년이 지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며느리는 여자로 태어나 남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될 뿐 아니라 칠거지악을 범하게 되었다며 자나 깨나 근심에 젖어 있었다. 며느리는 득남을 하기 위하여 절에서 백일기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시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가사를 전폐하고 염불에 전념하여 어느덧 백일을 맞게 되었다. 지성껏 불공을 올리던 부인이 그간의 누적된 피로로 말미암아 부처님 앞에 불공을 드리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정숙한 몸가짐과 이름답고 빼어난 미모에 도취한 한 스님이 항시 연정을 느껴 왔으나 불자의 몸으로 유부녀를 흠모하는 마음 자체도 커다란 죄악인지라 감정을 억제하여 오던 중 그날따라 곤하게 잠에 빠진 부인의 모습을 보니

선녀와도 같고 측은해 보이기도 하여 욕정을 갖고 부인 곁으로 다가서 겁탈하려고 하였다. 남편인 박씨는 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부인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염려가 되어 횃불을 들고 호신용으로 도끼를 가지고 절에 가서 보니 사찰문에 비취진 한 쌍의 그림자가 자기 부인과 중이 다정하게 열애를 하는 장면 같아 격분하였다. 이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 도끼를 미구 휘두르면서 혼비백산 뒷산으로 도망치는 중놈을 쫓아가 도끼로 내리치니 바위 위에 피를 흘리면서 즉사하였다.

그 광경을 목격한 부인은 비록 남편의 오해로 인한 참사일지라도 자기로 인하여 저질러졌으며 설상가상으로 불륜의 누명을 쓰게 되어 백일치성도 물거품이 된 채 그 길로 절을 빠져나와 사찰 앞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시체를 거둬보니 부인은 임신 중이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박씨 가문은 영원히 대가 끊어졌으며 박씨 일가족도 이 부락을 떠나고 말았다 한다.

당시 중이 참살 당했다는 넓적한 바위에는 검붉게 얼룩진 핏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부인이 몸을 던진 연못주위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은 날에는 한 많은 여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리곤 해서 밤늦게는 다니지 못하였다고 하며, 사찰은 흉가로 변하여 방치된 채 풍우로 삭아 없어져 버리니 그 후 이 마을을 사근절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러한 연유로 말미암아 방문에 검은 천이란 발 또는 병풍을 가리고 잠지는 습관이 생겨 전래되고 있는데 이는 문에 비친 그림자로 인하여 오해를 일으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최근에는 절터 주변에서 기와 조각, 불기 등이 종종 출토되고 있으며 불상과 비석은 일제 때 일병들이 발굴해서 가져갔다고 한다. 지금은 절터와 연못에 잡초만이 우거져 있다.

18. 의마총(義馬塚)에 얽힌 전설

1578년(선조 11) 호조판서에 이르러 청백리에 녹선된 후 광국공신 2등 연안군에 추봉된 이후백(李後白)의 손자 충의공 이유길(忠毅公 李有吉)은 임진왜란 때 아버지가 전사하자 이에 격분을 참지 못해 18세 어린나이로 복수를 하기 위하여 상중의 몸으로 의거하여 이순신을 따라 명량해전에서 전공을 세웠다. 또한 1619년(광해군 11) 명나라에서 금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원군 요청이 있을 때 영유현령이 된 후 도원수 강홍립을 따라 우영장으로 선봉장이 되어 중국 심하지방(深河地方)으로 출전하여 명나라 장수 유정과 같이 적진에 들어가 분전하다가 전사하니 그를 수행했던 가동(家僮)들도 모두 물에 빠져 자살하였다. 이때 장군은 머리카락과 손발톱을 잘라 옷소매를 찢어



의마총

“3월 4일 死”라는 다섯 글자를 써서 애마에 매고 채찍질을 하니 애마는 압록강을 건너 고향인 현 광탄면 발랑리 오미에 돌아와 비명을 지르며 죽었다. 이에 장군의 초혼장을 지내고 동시에 애마의 가룩한 뜻을 길이 추모하기 위하여 말을 고이 묻어주었다. 이 이야기가 전파되어 나라에서 장군을 이조참판에 추증하고 충신 정려문을 하사하였으며 말의 무덤을 의마총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19. 혜음령(惠陰嶺) 고개에 얽힌 전설

혜음령 고개는 옛날 이 고개 중턱 좌측에 혜음사가 있었던 곳으로 광탄면 용미리 벽제관을 넘어 다니는 고개이며 한양에서 의주로 가는 국도이다. 고개 주변에는 산림이 울창하고 으스스해서 도둑들이 수시로 나타나 행인들을 괴롭히곤 했다고 한다. 이곳에 힘이 센 두 도둑이 있었는데 하루는 많은 재물을 으스스한 곳에 훔쳐놓고 서로 나누어 가지자 하였으나 욕심이 많은 도둑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독차지하고자 흉계를 꾸몄다. 두 도둑은 술을 한잔 먹고 분배하자고 하여 한 사람이 술을 받으러 가서 술에 독약을 타서 가지고 올라오는데 산에 남아 있던 도둑은 칼을 준비해서 술을 가지고 오는 도둑을 숲에 숨어 있다가 죽이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술을 사가지고 올라오는 도둑을 몰래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흥이 나서 술을 가지고 올라가 마시고 죽으니 두 도둑은 모두 욕심으로 인하여 죽고 말았던 것이다.

20. 진대박이에 얽힌 전설

광탄면 용미4리 진지동은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다. 때는 1592년(선조 25) 일본의 풍신수길(豊臣秀吉)은 25만의 대군을 조선에 보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이끄는 왜군은 부산을 비롯하여 조선 땅을 순식간에 유린하고 5월 2일 임진강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15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조선군은 패하였고, 왜군은 계속 진격하여 송도를 거쳐 평양성을 함락시키는 등 전역에 걸쳐 침략을 하니 조정에서는 할 수 없이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이에 명나라 이여송(李如松)이 이끄는 20만 대군이 들어와 1593년 1월 8일 평양성을 탈환하고 진격하니 황해도 봉산·백천·개성에 주둔한 왜군들까지 한성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이 광탄면 용미리에 진을 치고 있을 당시 왜군들은 한양으로 전부 집결하여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벽제관으로 쳐들어오니 조선에서는 승장(僧將) 처영(處英)이 이끄는 승병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고령산 전역에 걸쳐 명군과 조선군의 시체가 즐비하였다 하며 신음소리가 하늘을 진동시킬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여송의 아우 이여백(李如伯)과 이여매(李如梅)가 전사하니 비참한 슬픔 속에 명군이 평양성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그 후 주민들은 이를 추모하기 위하여 그 당시 진대를 세워놓고 동리명을 진대박이라 불렀다고 있다 한다.

21. 처사바위에 얽힌 전설

광탄면 마장리 박달산 동쪽의 산록으로 기암절벽이 있는데 이곳에는 마당 같은 큰 바위가 있으며 그 아래로는 고령산의 맑은 시냇물이 흘러 물속이 들여다보이는 서너길 가량의 웅덩이 연못이 있었다. 이러한 경관이 아름다운 이 곳 마당바위에서 성종대왕의 5남 완원군의 9대손 되는 이견섭(李建燮)은 벼슬을 마다하고 공부에만 전념하였으며 이 연못에서 목욕을 자주하면서 책과 더불어 벗을 삼았다고 한다.

그러는 동안 학문이 전진되어 유명한 산중처사·학자로 소문이 자자하게 되자 인근 유생이 많이 몰려들어 집에서 훈학을 하는 한편 조선조 말에 교하향교 훈도로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처사가 공부 하던 바위를 일러 처사바위, 그 아래 연못을 처사탕이라고 부르며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으나 현재 연못은 전부 매몰되어 얇은 시냇물만이 흐르

고 있는 상태로 변모되었다.

22. 양녹골 연자방아의 전설

파평면 덕천리 양녹골 뒷산 비탈 후미진 도랑이 있는 곳에 연자방아가 있었다. 이 연자방아는 옛날 유관(柳寬) 정승과 관련된 전설을 갖고 있다. 유관은 학문에 뛰어나고 시문에 능한 대학자로서 치사(致仕)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고향인 파평면 덕천리 양녹골에 본가를 두고 서울 동대문 밖에 초가삼간을 짓고 살면서 집 옆에 연자방아를 만들어 동리사람들이 방아를 찧고 내는 방아 세로 연명을 하였으며 울타리도 없이 여름철에 비가 오면 지붕이 새는 초라한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널리 알려져 청백리에 기록된 강직한 선비였다. 그 당시 좌우승지와 이조참의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로 있는 이희(李曦)가 문안차 유관을 방문했다가 너무 초라한 광경을 보고 사재로 울타리와 집과 방앗간 지붕을 수리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대노(大怒)하면서 “경상감사가 어인 재산이 많아 남의 집까지 돕고자 하느냐?”며 호통을 치자 이희는 “이 보수비용은 조상님의 유산이 좀 있어 마련한 것이지 조금도 국록을 축낸 것이 아닙니다.” 하고 아뢰었으나 선생은 즉시 이희의 재산을 조사토록 한 바 사실과 틀림없었다 한다.

어느 날 유관이 이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먼저 세상을 뜨거든 이 연자방아를 고향으로 옮겨 내 마누라가 여생을 살도록 해주게.” 하는 부탁을 한 후 돌아가시니 이희는 그 유언에 따라 연자방아를 현 파평면 덕천리 양녹골로 옮겼다 한다. 부인마저 별세하자 후손이 없는 처지인지라 연자방아는 자연적으로 이희가 관리하게 되었는데 수백 년이 흘러 오늘날까지 내려오다가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전설만이 남았다고 한다.

23. 궁터에 얽힌 전설

늘노천이 흐르는 하류 양 편 파평면 금파리 지역 임진강변 언덕에는 궁터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옛날 파해평사현(坡害平史縣) 고을이 있었던 곳이다. 이곳은 현 금파리와 장파리의 편평한 장마루언덕이 이어지는 지역으로서 지형을 따라 고을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王建)은 개성에 도읍할 당시 임진강변 주위에 토성을 쌓아 놓고 이 고을 청사가 있던 자리에 아담한 이궁(離宮)을 건립하여 자주 왕래하였다고 한다. 이 궁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산 중턱

에는 샘물이 있는데 임금님이 마셨다 하여 어수(御水)라 불렀으며 물맛이 좋은 약수로서 수원이 풍부하여 1978년부터 금파리 주민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다.

한편 고려가 망할 당시 '돌 위에 쪼미 먹는다는 석두충(石頭蟲), 말머리에 뿔이 난다는 마두각(馬頭角), 까마귀 머리가 회게 된다는 오두백(烏頭白)'이라는 세 가지 유언비어가 이곳에서 나왔으며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24. 장계(場溪)와 우계(牛溪)에 얽힌 전설

한반도 심장부 동서로 흐르는 임진강은 옛날 한양과 송도의 중간지점으로 선비와 학자들이 자주 찾아와 낚시와 시조를 읊고 즐기며 세월을 보냈던 아름다운 곳이다. 또한 밤중에 어화(漁火) 등불을 비추며 오르내리는 고기잡이배들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파평면 두포리 장계(場溪) 마을은 옛날 상선배가 오르내리며 쉬어가던 곳으로 시장이 번창하였다고 하며 지금까지 장계로 부르고 있다.

이 마을 뒷산은 파평산 서맥 내령 끝머리에 위치하였으나 이 골짜기에서 흐르는 시냇물 근처에 많은 소들이 풀을 뜯어먹었다 하여 소개울이라 칭하고 있다. 이 소개울 하류는 당시 유명한 대학자이며 효자인 청송 성수침(聽松 成守琛)이 벼슬을 마다하고 한양에서 1544년(중종 39) 9월에 아들 우계 성혼(牛溪 成渾)과 더불어 낙향하여 학문을 연구하며 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곳이다. 울곡 이이(栗谷 李珣), 구봉 송익필(龜峯 宋翼弼)과 교우를 맺은 아들 성혼은 호를 묵암(默菴) 또는 우계(牛溪)로 불렀는데 당대의 유명한 대학자이다. 또한 이곳 웅담리에서 내려오는 늘노천과 소개울이 합류하여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어귀에는 성담수(成聃壽)가 계유정난을 겪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어 교리(校理)벼슬을 버리고 이곳으로 내려와 몽구정(夢鷗亭)이란 정자를 세우고 단종을 사모하여 시와 낚시로 세월을 보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25. 두지리(斗只里)에 얽힌 전설

적성면 두지리는 원래 '두지(斗只)'가 아닌 '두기(頭耆)'였다. 용마의 머리 및 등과 같은 앞산이, 쌀이 가득 찬 견대형국(肩帶刑局)으로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으로 이곳 주민들은 재산을 모으면 타지로 떠나야 그 재산을 유지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이 마을에는 450여 년 전에 경주최씨가 처음 들어와 살았으나 그 후 각 성씨가 들어와 용기를 만들며 살게 된 임진강변 조그마한 벽촌이다. 현재는 농업과 축산업, 고기잡이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며 마을 주민들이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매년 음력 9월 9일 국사봉 뒷산 중턱에 올라가 밤12시에 집집마다 소지를 올리며 산신제를 지내고 용머리산을 타고 내려온다.

옛날 이 용머리 아래 부유하게 사는 김씨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어찌나 욕심이 많았던지 스님이나 걸인이 와도 쌀 한 톨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이 구두쇠영감은 금강산에 산다는 도승이 찾아와 하룻밤 쉬어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 그러자 도승이 “당신이 뒷산 용마루 아래 선조 산소를 쓰면 더욱 큰 부자가 될 터인데...” 하고 돌아가자 꿈꿈이 생각 끝에 그 말을 곧이 듣고 따르기로 했다. 며칠 후 아버지의 묘를 이곳에 옮기려고 용의 허리를 꿰으니 붉은 피가 솟구쳐 임진강으로 흘러 내렸고 구두쇠 영감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즉사하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지금도 피가 모여 있던 곳을 가리켜 피머리라 부르고 있다고 한다.

26. 갯바위에 얽힌 전설

이 지역은 감악산 동북맥 준령으로 삼면이 둘러싸인 산골짜기 마을로 옛날에 이씨들이 정착하여 수십 호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 부자가 있었다. 그는 인심이 후덕하여 늘 손객이 끊일 날이 없자 손님 치다꺼리에 너무나 지쳐 ‘어떻게 손님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 하고 늘 고심하던 중 도승이 시주를 청하자 그의 딱한 사정을 말하였다. “저 건너 산의 갯바위를 깨뜨려 없애면 재산이 줄어 손님도 점점 줄게 되고 일 년 안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중히 생각해서 거행하십시오.” 하는 말을 마치고 중은 사라졌다. 그 후 이 부자가 하인들을 시켜 갯바위를 깨뜨리도록 하니 이상하게도 바위에서 피가 흘러나오는지라 이 광경을 보고 하산한 후 갖가지 우환이 생겼을 뿐 아니라 병고가 자주 생겨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결국 집안 식구들이 풍비박산 흩어져 폐가가 되었다 한다.